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璟培

열린교육운영에 대한 教師와 兒童의
認知度 및 改善方案 研究

A Study on Teacher's and Children's Cognition of
Open Education Operation and Its Remedial Measures

1999年2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柳 根 海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金璟培

열린교육운영에 대한 教師와 兒童의
認知度 및 改善方案 研究

A Study on Teacher's and Children's Cognition of
Open Education Operation and Its Remedial Measures

위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2月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育行政學科

教育行政專攻

柳 根 海

柳根海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1999 年 2 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 內容	3
4. 研究의 制限點	3

II. 理論的 背景

4

1. 열린교육의 意義	4
2. 열린교육의 理論的 背景	9
3. 열린교육의 世界的動向	16
4. 열린교육의 教育課程	21
5. 열린교육의 教授-學習運營	26
6. 先行研究의 考察	31

III. 研究의 方法

35

1. 研究 對象	35
2. 測定 道具	36
3. 資料 處理	38

IV. 資料分析 및 解釋	39
1. 열린교육에 대한 敎師들의 見解	39
2. 열린교육에 대한 兒童들의 見解	66
V. 要約, 結論 및 提言	84
1. 要約	84
2. 結論	86
3. 提言	87
參考文獻	88
附 錄	92
Abstract	103

표 목 차

<표 1> 열린교육과 전통교육의 비교	26
<표 2> 연구대상 교사의 집단별 분포	35
<표 3> 연구대상 아동의 집단별 분포	36
<표 4> 교사 설문지 구성영역 및 문항수	37
<표 5> 아동 설문지 구성영역 및 문항수	38
<표 6> 열린교육 실시에 대한 견해	39
<표 7> 열린교육에 대한 아동 호응도	41
<표 8> 열린교육 방법으로의 개선	42
<표 9> 열린교육 실시에 도움을 얻은 계기	44
<표 10> 열린교육에 대한 전망	45
<표 11> 열린교육 학습 안 작성방법	47
<표 12> 열린교육의 예체능 교과지도 방법	48
<표 13> 열린교육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발생에 대한 우려	49
<표 14> 열린수업 실시의 빈도수	50
<표 15> 열린수업을 위한 학습자료의 투입시간	51
<표 16> 학습자료 제작 시간의 부족원인	52
<표 17> 열린 교수 - 학습자료의 제작 경비	54
<표 18> 열린교육 후 학습평가 방법	55
<표 19> 평가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56
<표 20> 열린교육에서 특활의 적합한 영역	58
<표 21> 열린 특별활동에서 향상되는 점	59

<표 22> 열린교육이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60
<표 23> 교육기자재 활용 빈도수	62
<표 24> 교육기자재 활용 능숙도	63
<표 25> 열린교육에 대한 학부모 호응도	64
<표 26>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	66
<표 27> 숙제의 분량	67
<표 28> 조사나 수집하는 숙제의 해결	68
<표 29> 사용할 준비물의 준비 방법	69
<표 30> 1주일동안의 준비물의 횟수	70
<표 31> 선생님과 재미있는 공부 방법	71
<표 32> 재미있는 공부 방법	72
<표 33> 조별로 공부할 때 좋은 점	73
<표 34> 이동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74
<표 35> 조별학습, 친구, 선생님과 의 학습	75
<표 36> 학습코너의 좋은 점	76
<표 37> 새 단원을 위한 진단평가	77
<표 38> 매 시간 후 선생님의 평가 방법	78
<표 39> 단원정리의 평가 방법	79
<표 40> 반장, 부 반장의 선출 방법	80
<표 41> 클럽활동 부서의 선택	81
<표 42> 클럽활동에 대한 견해	82
<표 43> 학급문고와 학교도서의 이용	83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지금 세계각국은 서로 앞을 다투어 새로운 교육 혁명의 길을 찾아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담한 교육개혁과 더불어 교육구조의 혁신 없이 우리가 새로운 문명의 중심권에 설 수 없다. 교육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방법을 과감히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난날 공급자 위주의 교육에서 현재의 수요자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변화해 가는 열린교육 사회에서는 그들의 타고난 재주와 잠재능력을 계발해 주어야 할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

새로운 교육방법의 하나로 열린교육이 10여 년간 소수의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열린교육은 “다양한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개별화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누구든지 스스로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마다의 이상을 추구하고, 개성을 발전시키며, 자신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지속적인 성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¹⁾이라 주장하는 것으로 기존의 학교교육 개선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최근 열린교육에 대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많은 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며 교사들 또한 각종 연수회를 통하여 열린교육에 대한 학습방법과 그 밖의 여러 영역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1) 이돈희. “열린교육 입문” (서울:교육과학사, 1997). p.3.

물론 이러한 열린교육의 열기가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은 침체되어 있는 교육현장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재인식하고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의 확산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풍토 속에서 실현 가능한 代案으로써의 교육인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측면도 없지 않고, 열린교육이야말로 현실이 요구하는 교육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책의 교육방법인가에 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열린교육은 획일성과 경직성을 띠고 있어서 지시와 명령에 따른다는 측면이 있다. 이런 현상을 탈피하여 학습자의 개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 신장을 키우기 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우리 교육 현실에 알맞고, 본질에 맞는 열린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간절히 요구된다.

2. 研究의 目的

열린교육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交感속에서 이루어져야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교육의 현장에서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열린교육에 대하여 교사들의 필요성 및 인지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열린교육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지도는 어느 정도 인가?

셋째, 열린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들은 무엇인가?

3. 研究의 內容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열린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교육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론적인 분석을 한다.

둘째, 교사의 배경변인 (성별, 연령, 교직경력, 열린교육 경험연수, 교과영역, 지역)별로 열린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셋째, 특별활동운영과 열린교육실시로 향상되는 점을 알아본다.

넷째, 학생의 배경변인 (성별, 학년, 담임교사)에 따라서 평상시의 수업방법, 열린교육에서의 수업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섯째, 열린교육에서의 평가방법 및 특별활동에 대하여 알아본다.

4. 研究의 制限點

- 1) 서울특별시 15개 학교와 경기도 5개의 초등학교 교사와 아동에게서 표본 추출하였으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 2) 설문지 제작은 1992년 이후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본인의 의도대로 제작하였으므로 신뢰도, 타당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Ⅱ. 理論的 背景

열린교육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1950, 60년대에 영국 유아 및 초등학교에서 널리 확산되었던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린교육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학습활동을 전개하는 점에 착안하여 영국과 미국 것을 보고 “개별화 개성화 교육”이라는 방법론을 정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우리화를 이루지 못하고 ‘Open Education’에 대처할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하고 그냥 “열린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이를 대처할 적절한 용어가 없어서 처음에 사용한 열린교육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열린교육의 意義

열린교육이란 Open Education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한 것으로 그 속에 담긴 교육 철학이나 방법, 이념 등에 대하여 한국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우리의 교육 철학과 교육사에 근거한 의미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열린교육’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개념 정리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열린교육의 개념보다는 ‘의미나’ ‘뜻’ 등으로 정리를 한다.,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웨버(Linllian Weber)로서

뉴욕대학에 'Workshop Center for Open Education'이라는 연구소를 설치한 1970년대 초부터이다.²⁾ 우리나라는 1991년 4월 '열린교육연구회'발족과함께 열린교육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열린교육의 '열린'이란 닫혀있지 않고, 제한이 없고, 편견이 있거나 막혀 있지 않고, 자유롭고, 항상 도정에 있으며, 마음이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서 '교육'의 개념은 형용사 '열린'이라는 것에 접목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삶을 제공하였다.³⁾ 열린교육은 고정화되어 있지 않은 교육형태를 말하므로 그 개념에 대하여 학자들이 내리는 정의도 다양하다.

외국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J. Rothenberg는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의 목적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도 창의적인 인간으로 교육하는 것이므로, 교육 프로그램은 아동중심, 아동의 개인차에 중점을 둔 융통성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외적인 요구에 의한 것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⁴⁾ 또한 G. S. Morrison은 열린교육은 아동의 개별화를 인정하고 독립성과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적인 초등학교의 교실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라 하였다.⁵⁾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학자들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각기 다르게 정의하

2) 은용기, 길형석, "열린학교 열린교육" (서울:대한교과서 주식회사,1992), p.58.

3) 심정보외, "열린교육의 철학" (서울: 학지사, 1998), p.18.

4) J. Rothenberg, "The Open Classroom Reconsidered",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 90 (1990), p.72를 인용한 강영은, "앞의 논문", p. 47에서 재인용.

5) G. S. Morrison,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Ohio :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1980), pp.136-163을 인용한 이영희, "열린 교수-학습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1997), p.5에서 재인용

고 있다.

이석주는 열린교육은 고등정신 기능을 열어주는 여는교육이며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여 바른 심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교육이다. 여기에 따르는 다양한 기법과 자료와 내용 구성은 교사의 몫이다. 열린교육은 이와 같이 자기의 역할분담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도착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교육은 교육의 이념적인 목표가 되는 “여는교육”으로 이해하고 열린내용, 열린수단, 열린방법, 창의성과 자율성, 교단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정의하였다.⁶⁾

강영은은 열린교육에서는 아동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아동이 교수-학습 과정의 주체로서 자신의 학습활동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였다.⁷⁾

이현남은 열린교육은 지금까지 ‘닫혀있음’으로 인해 여러 병폐를 야기한 학교 교육의 규정된 양식을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교육적 성과를 기대해 보는 시도라고 하며, 열린교육은 학생에게 학습권을 부여하며 자아실현인이 되게 하는 개방적 학습과정이라 하였다.⁸⁾

김은산은 열린교육은 종래 학교의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경직화된 획일적, 주입식, 일제수업을 지양한다. 그 대신 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를 허용하여 넓고 다양한 아동중심적인 환경에서 자신들의 흥미와 각기 다른 발달속도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부하며 생활하도록 한다. 탄력적인 커리큘럼의 운영과 개방된 인간관계 속에서 아동들이 ‘개성’과 ‘창의

6) 이석주. “열린학습의 이론과 실천” (서울:열린수업 연구소,1997), p.48.

7) 강영은, 「열린교육의 이념과 운영방법」, 서울열린교육연구회, 서울열린교육 자율연수교재 (서울: 서울열린교육 연구회, 1996), p.8.

8) 이현남, “열린교육의 유래와 개념” 「열린교육의 이해」 (서울 : 양서원, 1994), p.24.

성'과 '자주적 태도'를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하였고, '열렸다(open)'라는 의미로서 넓게 트인 공간(open space),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open curriculum), 탄력성 있는 학습집단(open organization), 트인 인간관계(open human relation), 열린 마음(open mind) 등을 들고 있다.⁹⁾

열린교육은 미리 결정된 교과중심의 교육과정을 칠판과 백묵만을 주로 사용하여 교사설명위주의 방법으로 교육했을 때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교과중심 교육과정이 국가수준에서 미리 결정되어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시간배당과 진도까지 그에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교실수업이 학생의 수준과 3관심을 크게 고려하지 못한 채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한 설명위주로 이루어지기 십상이었다.

날날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보다 의미 있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작된 열린교육은 처음에는 학습환경을 풍부하게 구성하는데서 부터 출발하였다. 읽기 자료 뿐만 아니라 보고 듣고 만들고 조작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학습영역별로 분류하여 늘어놓고 학생들이 어느 영역부터 할 것인지 순서를 스스로 정하여, 자신의 속도에 따라 학습해 나가게 하고, 특정 학습영역에는 교사가 소집단 지도를 해주면서 보조교사들이 학습자들의 개별적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수업을 해왔다.¹⁰⁾

이와 같이 열린교육은 처음의 문제의식에서부터, 교육과정을 교과중심 보다는 생활상의 문제와 아동의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려 했던 진보주의교육과는 달리, 기존의 교과를 가르치되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아

9) 김문빈, 박종원, 「열린교육 첫걸음」 (서울 : 지성의 샘, 1994), pp. 15-16.

10) 한국교육개발원, 「열린교육 현장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p. 38.

동의 학습속도와 관심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배려하고, 학습환경을 구체적 자료들을 동원하여 풍부하게 꾸며주려는 교육이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열린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를 중시하면서 방법에 있어서 개개 아동의 능력과 관심을 존중하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 흥미를 북돋기 위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교육이다. 그러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열린교육에서는 지적, 정의적, 운동감각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학습환경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편성, 학습집단 구성 방법 등을 유연하게 운영한다.¹¹⁾

이상과 같이 열린교육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열린교육은 교사와 아동의 相互交感속에 서로의 신뢰와 존중심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학습의 개별화를 특징으로 하며, 열린형태의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학습방법이다.”

11) 한국교육개발원, 「상세서」 p.39.

2. 열린교육의 理論的 背景

1) 哲學的 基礎

열린 교육의 기저에는 어느 한 사람의 교육이론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교육사상들이 담겨 있다. 기원전 5세기경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산파법이라는 문답형식으로 교육하였다. 이것은 주입식 교육으로 아동 중심적이며, 자발적인 활동중심 교육의 형태였다.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동의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훈련도 강조하였으며, 놀이의 가치도 인정하는 전인적 발달 교육을 하였다. 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16세기 라블레는 당시의 부적합한 교육과정을 공격하면서, 아동들의 개별적인 자유를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몽테뉴는 당시 프랑스의 매우 엄격하고 현안적인 교육을 비판하면서, 개별화된 교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아동의 '가장 진지한 활동' 으로서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의무교육을 지지하고 실제적 경험의 중요성과 교과목의 통합을 강조하였으며, 수업에다가 아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수업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세기 영국 철학자인 록크는 감각적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이들을 학교건물로부터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으로 데리고 나가야 한다

12) 김은산, "열린교육의 이론적고찰",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4). pp.29-30.

고 주장했다.¹³⁾

18세기에는 아동중심 교육학자인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Emile)에서 아동이 그의 나이에 맞는 자연스러운 발달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교사를 조연자의 입장에 두었고, 아동을 강제적으로 작은 어른으로 만드는데서 해방시키려고 하였다.¹⁴⁾

19세기에는 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중 페스탈로찌, 프로벨, 헬바르트 등이 있다. 페스탈로찌는 루소의 이론을 가장 잘 계승·발전시킨 사람으로 근대 초등교육의 기초를 쌓았으며, 지적, 도덕적, 신체적 교육이 통합되어야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고르게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천적 교육방법으로 경험이 상징에 우선하고, 교육은 아동 중심적이어야 하며,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하였다.¹⁵⁾ 프로벨은 세계 최초의 유치원을 세웠다. 그는 모든 아동의 내부에는 신의 속성이 기들어 있으며, 교사는 아동에게 간섭하거나 강제적 교육을 부과해서는 안되지만 아동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잘 울거나 고집이 셀 때에는 교사가 그 이유를 발견하여 창조적 발달에 장애가 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유희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교사는 아동의 자연스런 발달을 제한하지 않는 안내와 환경 구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이러한 상상에 기초한 유치원 운동은 영국에서 열린교육의 모체가 된 유아학교(Infant School)로 나타났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아동중심주의 대표자는 미국의 파커를 들 수 있다.

13) 신옥순, 유혜령(역), 「유아를 위한 개방교육의 이론과 실제」(서울 : 창지사, 1991), pp.17-22.

14) 이석주, 「열린학습의 준비와 실천」(서울 : 열린수업연구소, 1997), p.50.

15) 김은산, 「전계서」, p.31.

16) 김은산, 「상계서」, p.31.

그는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질서 정연하고 논리적으로 배열된 학과목들을 배우는 데 있지 않고, 아동 자신의 발전에 있다고 하였다. 1920년대에 이탈리아의 몬테소리는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 한다는 가설에 따른 교육을 시도하였다. 그는 성인과 아동사이에는 갈등이 항존한다고 했다. 또한 교육개혁은 성인들이 우월감을 버리고 아동들을 존중해야 하며, 아동이 욕구불만에서 해방된 자기 스스로의 생활을 갖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⁷⁾

피아제는 인지발달이론에서 개인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인지구조가 발달하고 수정해 나가며, 아동들은 어른들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지각하지 않으므로, 어린이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재나 교육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존 듀이는 교육을 '경험안에서, 경험에 의하여, 경험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발전' 이라고 하면서, 특히 교육적인 경험을 강조하였고, 또한 놀이와 작업을 통한 교육을 주장하였다.¹⁹⁾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57년 소련으로부터 받은 Sputnik 속크가 결정타를 주었다. 그러자 한때 지식중심, 교사중심, 주입식교육으로 회귀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켰고 위기를 느낀 미국인들이 교육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가 주목하게 된 것이 당시 영국에서 새로 일어나고 있던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운동이었다. 이에 미국의 교육학자와 교사들이 대거 영국에

17) 이석주, 「전개서」, p.51.

18) 권낙원, 「열린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현대교육, 1997), pp.34-37.

19) 이석주, 「전개서」, p.50.

전너가 보고 와서 세우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Open Education 이었다.

20)

이 운동은 런던대학교 교육대학의 한 사람인 위츠교수는 “우리는 니일로부터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니일 등이 몇 십년 전에 사립학교에서 시작한 진보주의 교육을 우리는 1970년대의 공립학교에서 재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일은 “어린이들을 학교에 맞추는 대신에 어린이에게 맞추는 학교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실험학교인 Summer Hill을 시작했다. 그 내용은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외적인 자유와 어른들의 벌, 꾸지람, 잔소리 등을 일체 없앴으로서 공포와 증오와 위선과 불관용으로 부터 벗어난 자유로운 감정의 내적인 자유를 허용했다.²¹⁾

지금까지 열린교육의 역사적 기초를 서양 교육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봐왔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동양 혹은 우리나라에도 일찍부터 있어 왔다. 인간의 착한 성품과 발달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孟子의 性善說이나 儒敎의 ‘누구나 修養 여하에 따라 君子 혹은 聖人이 될 수 있다’는 사상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또 불교의 ‘누구나 修道 여하에 따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成佛사상이 그것이다. 孟母의 三遷之敎는 교육환경 중시 사상이며, 이율곡의 자기교육사상과 鄉約등은 자발적 교육과 지역사회 중시 사상과 통한다. 또 書堂, 鄉校, 成均館 등에서 실시했던 개인별 進度 授業은 個別學習 지도방법이었다.²²⁾

20) 김은산. 「전계서」, p.34.

21) 이석주. 「전계서」, p.51.

22) 김경혜. “한국전통교육 속의 열린교육적 요소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미간행, 1992)

2) 心理學的 基礎

열린교육의 정의는 다양하고, 열린교육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오랫동안 뿌리 내려진 서구 교육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철학적·심리학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열린교육은 실존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심리학에 이념적 기초를 두고 있다.²³⁾

실존주의는 생의 철학이나 현상학의 계보를 잇는 철학이며, 실존이란 어떤 것의 일반적 본성을 의미하는 본질과 구분되어 개별인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었던 세계만이 그 인간의 현실이 되는 것을 말한다.²⁴⁾

인본주의 교육자와 심리학자들 역시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인정하면서 인간은 자아실현에 대한 욕망을 가졌고 그 자아실현은 인간을 자유인이 되게 하며, 교육은 인간이 자신을 자유롭게 실현하도록 돕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존주의 철학과 인본주의 심리학에 바탕을 두고 자유를 누리고 존중하는 자유인, 생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인, 잠재능력을 발휘하고 창조하는 창조인으로서의 보람을 갖는 자아실현의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는 열린교육에서는 아동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수보다는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강조한다.²⁵⁾

23) 이현남 외, 「교육의 이해」(서울: 교육출판사, 1994), p.264에서 인용한 임형진, 열린교육의 이론적 고찰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1994), p.38.에서 재인용

24) 임형진, “열린교육의 이론적 고찰”,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양서원, 1994), p.38.

25) 김문빈, 박종원, 「열린교육 첫 걸음」(서울: 지성의 샘, 1994), p.32.

열린교육에서의 심리학적 이론의 기초는 프로이드와 피아제의 이론들이 수용된다.

프로이드는 인간 성격 구조를 因果成의 원리와 決定論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설명한다.²⁶⁾

정서, 사고, 그리고 외형적 행동으로 이루어진 이 인간 행동은 지각적 요소, 개념적 요소, 인지적 요소, 운동적 요소, 정의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행동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인성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피아제의 경우 열린교육에서의 아동들은 구체적 조작 활동, 환경과의 상호 작용들을 통하여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켜 간다고 하였다.²⁷⁾

이러한 프로이드나 피아제이 생각들은 열린교육하는 사람들이 아동들에게 강압보다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사회적 交友를 할 수 있게 해 주며,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 경험이나 조작 활동이 학습 심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社會學的 基礎

열린교육의 기원을 영국의 비형식 교육으로 볼 때 열린교육의 사회적 배경 또한 영국에서 그 원류를 찾아야 할 것이다.²⁸⁾ 영국에서의 비형식적 교육은 영국 특유의 독특한 요인, 즉 국가 장학 및 자문의 역할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장의 자율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26) 경기도교육청, 「교육을 열면 미래가 보인다」 (경기 : 경기도교육청), 1996. p.17.

27) 경기도교육청, 「상계서」, p.17.

28) 경기도교육청, 「상계서」, p.17.

교사들의 자율성, 소규모 학교, 교사 연구센터, 현직 연수 시설 등도 비형식 교육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인들이다.

미국의 경우 열린교육의 사회적 배경은 소련의 스푸트니크 위성 발사로 인한 충격, 제3세계의 영향력 감퇴 등 사회적으로 팽배한 미국 국민의 패배 의식으로 비롯된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교육의 근본에 대하여 다시 재고를 하며 국내에서만 해결하려던 교육의 문제를 외부로 눈을 돌려 영국의 비형식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열린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열린교육은 범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보다는 새로운 학교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되던 것이 1995년에 범국가적으로 교육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 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미국, 일본이 1980년대에 2000년 국가 장기 발전 계획 및 비전을 제시하며 교육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대량 지식 위주의 획일적 교육 방법을 지양하면서 교실 현장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지 않고는 급변하는 세계 사회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해지면서 현재의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 교사의 자생적 운동으로 일고 있던 열린교육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 그 시대나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교육 이론이 개발되고 실천되게 마련이다. 열린교육이 과연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나 교육 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

가 일부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칠판 앞에서 분필과 교과서를 들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기억하도록 강요하는 일제식, 획일적 교육 방법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이라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열린교육은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 개성과 창의성 신장, 사회 안의 다른 구성원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협동정신을 높여 주는 교육방식 등의 특성²⁹⁾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 사회가 요구하는 구성원을 길러 내는데 적합한 교육방법이라 여겨진다.

3. 열린교육의 世界的 動向³⁰⁾

열린교육은 서구사회의 오랜 사회 문화에 뿌리를 둔 교육사조로서 그들의 인습속에 배인 인간존중사상에 그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전된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열린교육은 1970년대 중반에는 미국, '80년대 중반에는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다. 영국에서는 종래의 형식적 교육에 대립되는 비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미국에서는 열린교육(Open Education), 일본에서는 개성화·개별화 교육이라고 부른다.

1) 英國의 열린교육

영국의 열린교육은 어린이들에게 보다 비형식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29) 조주연, "사회적 기초",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6), pp.64-67.

30) 김은산, "열린교육의 실제적 동향", (교육연구회 연차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3), pp.1-2.

어린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해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코메니우스, 프리벨, 루소, 페스탈로찌와 같은 아동중심 교육철학자들의 이론에 그 전통을 두고 있다. 영국의 모든 어린이들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영국 교육자들의 신념과 진보주의 교육운동에 의해 열린교육이 더욱 보편화되었다. 비형식교육이 미국의 진보주의교육의 영향을 받아 활발해지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교사들이 가르쳤던 그 방법들이었다. 이러한 전시교육에 대해 김은산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³¹⁾ 아버지들은 전쟁터로, 어머니들은 군수공장으로 가고, 남은 어린이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계속되는 폭격을 피해 안전한 농촌이나 산간으로 피난을 갔다. 교사들은 그 곳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며 생활하도록 할뿐 만 아니라 교육도 계속해 가야만 했다. 산간 목장이나 농촌의 주거를 겸한 창고 교실에서 칠판이나 책걸상, 학용품 등도 제대로 없는 환경에서 나이가 뒤섞인 학생들을 데리고, 교사들은 각자의 열의와 창의만으로 교육을 해 나갔다.

따라서 교사들은 교실이 아닌 더 넓은 공간에서 더 융통성 있는 시간 표에 의해 연령이나 학습 수준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아이들을 함께 가르쳤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고 놀면서 잘 자랐다. 그들은 일, 공부, 놀이가 구분되지 않은 학교 생활에서 한층 더 확실한 지식을 얻고 배운 지식을 실제로 응용하는 힘을 길렀다. 이와 같은 영국 교사들의 피난 학교에서의 경험의 성과는 전쟁 이 후 새로운 교육 경향을 가져오게 하였다. 예상외의 좋은 성과를

31) 김은산, 「상계서」 p.2.

거둔 이 전시교육의 경험은 영국교사들에게 큰 감명과 자신감을 안겨 주었다. 또한 어린이들의 관심은 각기 다르며 관심 있는 일에는 매우 열중하고, 열중한 활동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을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이 전쟁 중에 받은 교육내용과 수준이 천차만별이었으므로 전시 때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비형식교육은 더욱 확산되었다. 그 결과 60년대 중반 초등학교의 1/3이상이 비형식적인 아동 중심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32) 특히 어린이 개인의 존중을 역설한 해도우보고서를 '정확했다'라고 평가하였으며 그 교육방침을 더욱 더 조성하도록 촉구하였다.

2) 美國의 열린교육

1996년대 미국의 학자들은 기초 학력의 하락과 중퇴자의 급증,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 사회적 윤리 도덕성의 실추 등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학교 교육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³³⁾ 영국의 플라우덴보고서(Plowden Report)가 공개된 1967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학자, 연구자, 교사가 대량으로 영국의 학교교육을 방문하고 그들의 모든 것에 깊이 감명을 받게 되었다. 방문자들은 그들의 교육철학, 방법, 교사의 태도 등에 매료되었다.³⁴⁾ 당시 미국은 교육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 중이었다. 이들은 영국의 학교교육을 시찰하면서, 어린이들이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게 공부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교사들을 인상깊게 본 학자들은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는 지에

32) 한국교육개발원, 「전세서」, pp.53-54.

33) 장원희,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5. p.35.

34) 이현남, 「전세서」 p.21.

주목하면서 바로 그것이 학교생활을 싫어하거나 지루하게 여기는 어린이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며, 학교에서의 생활을 즐겁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얻으면서, 시들어 가는 자국의 교육을 소생시킬 묘책의 하나로써 미국으로의 이식을 시도한 것이다.

영국의 비형식교육이 open education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시찰단에 의해 미국에 널리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렇게 시작된 미국의 열린교육은 60년대 중반부터 무학년제와 개별학습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 미국적 열린교육이 미국의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학교를 보는 시각이 기존의 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있다는 점 등에서 관심을 모았으나, 이 교육방식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전국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였고 80년대 초·중반기에 미국의 교육문제는 개선된 점이 별로 없이 미국 학교교육의 실패가 또 다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또한 미국에서 열린교육이 더욱 확산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열린교육의 의미를 열린교실과 열린공간학교로, 자원인사의 배치, 팀티칭을 위한 교사간의 교과분담 등 인사조정에 더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영국학교를 방문한 미국의 교육자들은 교실의 구조, 교실에서의 관행, 특정한 자료 등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베끼려 하였고, 반대로 교사의 마음에서부터의 질문이 되는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부터 출발하는 열어 가는 교육적 자세의 측면에 소홀한데 그 실패의 요인을 두고 있다.³⁵⁾

그러나 미국에서 열린교육은 아직도 중요하고 바람직한 교육의 모형으로 남아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는 열린교육의 좋은 점을 자기 학교 나름

35) 한국교육개발원, 「전게서」 p.61.

의 상황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함으로써 전통적인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³⁶⁾

3) 日本의 열린교육

일본의 열린교육은 1970년대 초부터 미국 유학 출신 학자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획일화 교육을 개선하여 학생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실천하고자 시작되었다. 즉, 1973년에는 최초로 4개 학교가 열린공간으로 세워졌으며 이후 매년 5개 내외의 학교가 열린공간 학교로 지어졌고, 1984년부터 일본의 문부성이 열린공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부터 2,000개의 초,중학교가 열린공간을 갖춘 학교가 되었다. 1990년경에는 전국의 초등학교 24,730교와 중학교 11,300교가 열린공간을 갖는 학교로 지어졌다.³⁷⁾ 그러나 열린공간으로 지어진 학교가 모두 다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약 10%에 해당되는 200여개 교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열린공간으로 지어진 학교의 수에 비해서 열린교육 실시 학교가 훨씬 적은 데에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조건 열린공간 교실로 지어놓고 본다는 점 이외에는 교사 순환근무제가 실시되는 공립학교에서 열린교육이 주로 실시되고 있어서 한 학교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다가도 뜻이 다른 교장이 부임하면 쇠퇴했다가 또 다른 교장이 부임하면서 다시 실시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36) 장원희, 「전게서」, p.35.

37) 가토 유끼쓰구(加藤幸次, 천수성 역), 「학교를 연다」 (부산 : 도서출판 지평, 1993)에서 인용한 한형식, “일본의 열린교육”,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4), p.204.

이유가 있기도 한다.³⁸⁾

일본은 열린공간 학교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 일본에서는 개별화 개성화 교육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1984년 6월 전국 개성화 교육 연구동맹을 결성한 가토 교수는 오늘날 일본 개성화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본의 열린교육을 ‘개성화, 개별화 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의 열린교육을 살피는 데 알아두어야 할 것은, 많은 열린공간 교실을 갖추었다 해도 반드시 교육내용이 열린교육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은가 하면, 낡아빠진 현 교사 속에서 복도의 벽을 트고 교사들이 손수 필요한 교구·교재를 만들어 가며 아주 멋있는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점이다.

4. 열린교육의 教育課程

“좋은 열린교실은 실버맨이 지적했던 것처럼 학습문제와 학습내용의 선정, 교수-학습의 방법 등에 있어서 학생들의 선택과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가능한 보장하고,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학습경험을 학생들에게 가지게 하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³⁹⁾ 열린교육에서 교육과정은 일정한 유형으로 규정짓기는 어려우나 교육과정이 구조화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비구조적 교육과정’, ‘준구조적 교육과정’, ‘구조적 교육과정’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⁴⁰⁾

38) 장원희, 「전계서」, p.39.

39) G. M. Inlow, 「The Emergent in Curriculum」 (New York: John Wiley, 1986), p.7.에서 인용한 이영희, 「열린교수-학습의 운영에 관한연구」 (전국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p.28.에서 재인용

1) 열린교육의 非構造的 教育課程

교육내용, 방법, 제도면에서 가능한 한 아동과 교사에게 자율권을 최대한으로 허용하며, 아동들에게 교과목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사들은 아동들의 다양한 흥미와 욕구, 발달단계, 학습진도의 개별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구조적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부적절하다는 학교교육의 무용성을 제기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즉 형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실제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채워질 때 학교교육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의 학교교육의 목적은 교과목의 내용습득이 아니라 총체적인 삶이며 자유로운 삶은 그 방법이 된다고 주장한다.⁴⁰⁾ 비구조적 교육과정은 학교가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의 장이라는 의미보다는 현재 아동들이 생활하는 장으로서 중시되고, 현재의 학교생활은 아동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며, 일정한 학습내용이 없고, 교과서도 없으며,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들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학습내용이 된다. 즉 과제 중심이 아니라 아동중심적 접근으로써, 교과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기능보다는 아동의 학습경험을 학습주제로 하는 통합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을 선정하는데 교사와 아동은 협력자의 관계

40) 조연순, “열린교육의 교육과정”,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4), p.72.

41) Alexander Frazer, Open Schools for Children(Washington D. C.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72), p.51.에서 인용한 조연순, 「열린교육의 교육과정」,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p.73.에서 재인용

이며, 교사는 아동이 충실한 학습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활동은 대집단 활동이 거의 없으며, 학습센터와 개별학습코너에서의 소집단 중심의 협력과제를 하거나, 개별적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통합된 하루(integrated day)⁴²⁾에서는 모든 아동이 모든 활동을 거치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아동은 오늘 산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아동은 철자법 연습을 안 해도 되며, 또 다른 아동은 음악을 선택할 수 있다. 학습활동의 선택이 교사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거의 아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동은 자기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며 자기 하루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⁴³⁾

비구조적 교육과정은 아동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자에게 자유를 최대한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사회·문화적인 여건이 허락되어야 하며, 교육시설과 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진 후 실시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제한점이 따른다. 한편 비구조적 교육의 질적 수준의 통제가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비구조적 교육과정이 모든 아동의 행동변화에 항상 긍정적일 수는 없으며, 비효과적인 측면도 있다.

2) 열린교육의 準構造的 教育課程⁴⁴⁾

준구조적 교육과정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유지하면서,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준구조적 교육과정은 아동의 욕구와 흥

42) Alvin Hertzberg & Edward F. Ston, Schools are for Children(N. Y. : Schochen Books, 1974), p.7.에서 인용한 조연순, 「상계서」, p.74.에서 재인용

43) 조연순, 「열린교육의 교육과정」,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전계서」, p.74.

44) 조연순, 「상계서」 p.75.

미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적 요구를 조화시키려는 절충형이다. 준구조적 교육과정에서는 비구조적 교육과정과 같이 모든 선택이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기초기능 외의 사회나 과학 등의 영역에서는 아동이 원하는 학습주제를 선택하게 한다. 학습내용의 선정에 있어서는 가능한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존중하고, 기초학습기능의 습득을 중시한다. 교육내용 및 방법은 전반적으로 사전에 준비되며, 학습활동은 전체 학급이 모이는 시간, 소집단 활동, 개별학습활동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체 모임은 가능한 적게 하고 소집단활동과 개별학습을 많이 한다. 기초기능 교육은 개별학습에서 습득하게 하고, 다른 학습활동은 교사와 아동의 협의하에 아동이 선택한 학습장소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학급구성은 비슷한 연령으로 구성된 같은 학년 아동들이 반의 구분 없이 개방된 공간에서 자료와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학급전체가 모이는 시간에만 담임 교사가 있는 장소로 모인다. 준구조적 교육과정에서 교사는 학습내용의 계획자이며, 아동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준구조적 교육과정의 의도는 아동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것이다. 아동의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사회와 학교, 교사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3) 열린교육의 構造的 教育課程⁴⁵⁾

구조적 교육과정은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궁극적 목적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 하고자 목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과 학습활동을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45) 조연순, 「상계서」 p.77.

것이다. 구조적 교육과정에서는 학습내용과 활동을 아동이 선택하게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성인들이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열린교육에서 구조적 교육과정은 정해진 교육과정 내에서 아동의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아동의 개성을 존중하는 개별화된 학습을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학습내용으로는 기초학습기능이 중시되며, 필수적으로 습득해야할 학습과제가 부과되며, 아동의 흥미에 따른 선택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학습활동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아동이 선택하게 하여 아동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길러 주려는데 의의가 있다. 구조적 교육과정에서 교수 - 학습활동은 대집단 활동, 소집단 활동, 개별학습활동으로 나누어진다. 특히 개별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학습지 연습지(work sheet), 컴퓨터 보조학습 등의 자료를 많이 활용한다. 학급구성은 같은 연령으로 이루어지며 물리적으로 벽은 터놓았지만 학급간의 공동활동은 거의 없고, 같은 반 아동들끼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대부분의 학습활동이 이루어진다. 교사는 학습내용과 활동의 계획, 감독,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열린교육의 세 교육과정의 유형은 목적, 내용, 학습활동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각 교육과정은 학습내용과 활동을 아동이 선택하는 수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교육과정이 아동의 선택과 자율성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 세 가지 교육과정 중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선정할 것인지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하나의 교육과정을 선정할 때에는 충분한 철학적 근거를 갖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과 교육효과 등을 분석하여야 하겠다.

5. 열린교육의 敎授-學習運營

열린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은 모두 높은데 비해, 전통적 교육에서는 교사의 역할만 높고 학습자의 역할이 낮은 것이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안호는 열린교육과 전통적 교육의 차이점을 <표1>과 같이 비교 제시하였다.⁴⁶⁾

<표 1> 열린교육과 전통적교육의 비교

영역	열린교육	전통적교육
수업목표	학생개인 유동성,가변적,개별화	집단,전체학생 고정적,규정됨
수업형태 교육과정내용	교사와 학생이 결정됨 다양함 다양하고 폭이넓음	교사가 결정 교과서 중심 일정하고 폭이좁음
가구공간배치	여러 가지 교재의 사용 교사와 학생 결정	단일교재에 국한 교사가 결정
학습시간 계획 사용자료 학습활동	유동적, 유동성, 가변적 교사와 학생이 결정 다감각적, 다양한 수준 광범위	고정적임 교사가 결정 한정적, 정형화됨,미분화 협소
교사-학생,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생의 움직임 학습진행	유동성, 가변적, 개별적 교사와 학생이 결정 교사와 학생이 주도	고정적 형식에 박힘 교사가 결정 교사가 주도
	유동성, 제한이 없음 불규칙, 분화됨 집단에 근거함	제한적,전형적,협소화 규칙적,전형적,미분화 학년수준에 근거함

46) 김안호, “열린교실에서의 평가방안 모색” 전국열린교실연구응용학회 창간호 1993, p41.

1) 열린教授-學習方法

교수-학습방법은 학교에 따라 각기 다양하다. 동일한 교수-학습방법이라 하더라도 명칭을 달리 부르고 있기도 하고, 학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⁴⁷⁾ 또한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은 자유활동 학습, 러그 미팅, 개별 및 소집단활동, 연구조사, 협력학습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열린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의 여러 형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自由活動學習

자유활동학습은 오픈타임, 러그 미팅, 열린시간, 자유시간 등으로 부르고 있다. 자유활동시간은 교과과정 이외의 시간으로 아동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⁴⁸⁾

자유활동학습은 수업 시작전, 점심시간, 방과 후, 그리고 학교재량시간과 클럽활동시간 등을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유활동학습의 활동은 학교에 따라서 '오름길 학습', '밑다짐 학습', '다지기 학습',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으며, 활동내용도 각기 다르다. 자유활동학습은 일반적으로 기초학습능력을 기르는 활동, 선택과제 및 자유연구활동, 취미 및 특별활동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학습활동을 하는 학년도 전 학년이 하는 경우도 있고, 3-6학년만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영훈초등학교는 '오름길 학습'이라 하여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담임이 교수준비를 하는 동안 어린이들은 학습준비를 한다. 어린이는 교실에 들어오면 담임에게 인사를 하고 가방을 정리한 후 약속

47) 운현초등학교, 「전계서」, pp.24-27.

48) 박종원, 「열린교육에서 OPEN TIME 활용방법」, 서울열린교육연구회, 서울열린교육 : 자율연수교재 (서울 : 서울열린교육연구회, 1996), p.79.

장을 쓴다. 그리고 과제물을 제출한 후, 요일별로 정해진 특별활동-오름길 독서하기, 한자 쓰기, 동시 쓰고 외우기, 오름길 수학학습, 글씨쓰기, 친구와 대화하기, 색칠공부하기, 종이접기 등을 하고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 담임이나 명예교사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는다.⁴⁹⁾ 오름길 독서는 각 학년별로 도서목록을 작성하고 단계적인 독서지도를 통해 바른 독서습관과 사고력, 자료수집, 정리능력 등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오름길 수학은 어린이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수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1학년 부터 6학년까지 20단계로 구성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2) 러그 미팅⁵⁰⁾ (Rug meeting)

러그미팅(rug meeting) 시간은 모든 아동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러그 미팅 시간에는 날짜, 날씨, 새 소식 발표, 독후감 발표, 토론, 암산, 수게임 등 학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절할때의 바른 자세, 상황에 따라 바르게 인사하는 방법, 우리 가족의 기쁜 일 알아보기, 가족과 가족들이 하는 일, 상황에 따른 느낌 이야기 나누기, 친구들의 좋은점, 바른 자세로 점심 먹기, 말 전하기 게임 등 대집단 활동을 한다. 러그 미팅 시간에는 주제 전개를 위한 개념도입이나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개별 및 소집단 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협의하기도 한다. 러그 미팅 시간이 끝나면 전체 수업이나 개별 및 소집단활동으로 진행

49) 최재인, 「영훈초등학교의 열린교육」, 한국열린교육 연구회, 「전게서」, p.249.

50) 길형석, 「운현초등학교의 열린교육」,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연구회, (서울 : 양서원, 1994), p.269.

한다. 그러나 저학년의 경우에는 국어과의 말하기, 듣기, 바른생활, 도덕 교과와 같은 학습은 러그 미팅시간에 연장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3) 個別 및 小集團 學習活動⁵¹⁾

1주일 동안 학습한 내용 중 아동이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교과에 의해 활동영역별로 제시된 여러 과제들을 개별 또는 소집단으로 학습한다. 과제 제시는 주로 교사가 하지만, 학습계획은 아동이 세우도록 한다. 아동은 전체 계획 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순서, 방법, 시간 등을 결정한다. 아동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워 흥미와 만족감을 느끼며, 자신감과 학습의욕을 높인다. 개별학습의 한 방법으로 코너학습이 있다. 코너학습이란 학습자가 학습활동을 선택하고, 교사가 필요한 학습환경을 풍부하게 제공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에 기초한 개별화된 수업을 말한다. 코너학습은 학습목표달성에 적합한 필수학습활동코너, 우수한 어린이를 위한 심화·발전학습코너, 아동의 흥미·적성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선택학습코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研究調査⁵²⁾

주간학습 중 스스로 과제 해결한 어린이는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이 시간에 연구조사를 선택한 어린이들은 각기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참고도서를 이용하여 조사하게 한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개인별로 자기의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하도록 지도한다. 연구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

51) 길형석, 「상계서」, p.270.

52) 길형석, 「상계서」, p.272.

료수집과 연구방법 등을 생각하고, 조사한 내용의 작성은 각주와 참고문헌을 기록하게 한다.

(5) 協力學習⁵³⁾

협력학습은 4-5명의 아동을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에게 어떤 문제나 학습과제를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학습방법이다. 학습주제는 교사가 제시하기도 하고, 구성원들이 설정하기도 한다. 소집단 구성원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협력하여 학습활동을 한다. 이러한 협력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행동을 배우게 되고, 긴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협력학습은 학습에 자신이 있는 아동이 부족한 아동을 지도하는 동료 지도방법과 학습성취수준이 비슷한 아동들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협동방법이 있다. 협력학습을 통해 아동들은 함께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는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서 개별학습 보다도 우수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많은 협력학습의 방법 중 지그소우(Jigsaw)는 Eliot Aronso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이다.⁵⁴⁾ 이 방법에서는 1조를 6명으로 구성하여, 학습 주제를 여러 하위 주제로 나눈다. 팀의 구성원들은 각기 주제를 분담하여 학습 활동을 한다. 그리고 나서 같은 주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에 모여서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은 같은 주제 하에 여러 팀의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다. 토론이 끝난 후 학생들은 원래 자기가 소속했던 팀으로 돌아가서 나머지 팀원들에게

53) 길형석, 「상계서」, p.275.

54) 한국교육개발원, 「열린교육 현장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6), p.91.

자기가 공부한 주제에 대해 가르쳐 준다. 각 팀원은 한 주제에 대해서만 학습했기 때문에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공부한 다른 팀원에게서 배워야 한다. 따라서 다른 팀원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그소우는 사회과나 기타 텍스트를 통한 학습이 중요한 교과에서 적용하는 것이 좋다.

6. 先行 研究의 考察

우리 나라의 열린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그리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을 90년대 이후 연대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초등학교의 열린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를 한 박미애⁵⁵⁾는 열린교육을 도입한 초등학교는 기존 초등학교의 교과서중심,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 교육내용의 재구성과 창의적인 수업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열린교육 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열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간에 실행방법이나 실행정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오세분은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실태, 개선방안에서 열린교육 운영에 대한 교사·아동의 인식 차이와 열린교육실태 등을 파악하여 그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⁵⁶⁾ 그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학급 인원수 경감, 기준화된 평가척도의 개발, 자료 개발을 하는 전

55) 박미애(1991), "초등학교의 열려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56) 오세분,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실태·개선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92.

문기관의 활성화,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아동의 규율훈련, 정기적인 학부모 교육, 열린교육 적용 학교간의 정보에 대해 활발한 상호교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조효숙은 초등학교 열린교육 경험이 중학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논문⁵⁷⁾에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열린교육의 교육방법에 따라 중학교에서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그 결과가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의 경험은 중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의 학업성취도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는데 특히 기초적 개념보다는 적용력과 문제해결력 부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고력 신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개방성과 자율성의 측면에서 본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대하여 연구한 고승연⁵⁸⁾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목적과 수업에서 개방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고승연은 이 연구에서 교사들이 특별한 열린교육의 목적보다는 일반적인 교육목적에 갖고 있으며 생활면의 목적에 강조를 두고있다고 보고함으로써 보다 특별한 열린교육 철학과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목적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열린교육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교사교육,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 열린교육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다 다양한 학습자료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열린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지각과 역할수행과의 관계'를 연구한 홍세기⁵⁹⁾는 열린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은 그들의 역할을 대체로 높은

57) 조효숙, "초등학교 열린교육 경험이 중학교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1994).

58) 고승연 "개방성과 자율성의 측면에서 본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4).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으나, 그들의 역할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 홍세기는 이 논문에서 학교여건과 실정에 맞는 열린교육 적용방법을 구상하고 그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지영은 '열린교육의 가능성과 한계'⁶⁰⁾에서 열린교육이 전통적 교육에 비하여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교사와 학부모의 거부반응, 중학교와의 연계문제, 열린교육에 쉽게 적용하지 못하는 어린이에 대한 고려, 대도시의 학교가 대규모라는 점을 한국 열린교육의 한계라고 보고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열린교육의 모형제시, 열린교육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료 제작에 대한 재검토, 초등학교에서의 교과 전담제 활용방안, 열린교사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김양옥⁶¹⁾은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운영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하였는데, 교사들의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의 찬성율은 높았으나 근무교에서의 열린교육실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으로, 학급당 인원수가 많은데다 아직까지 열린교육에 대한 확고한 개념정립과 경험미숙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선진학교의 교수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또 다른 열린교육의 획일화가 우려된다고 하였다.

'열린교육에서 교사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을 연구한 이화연⁶²⁾은 한국 열린교육의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별 열린

59) 홍세기, “열린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의 역할지각과 역할수행과의 관계”,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1994.

60) 문지영, “열린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1994).

61) 김양옥, “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운영실태와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1996).

62) 이화연, “열린교육에서 교사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공간의 확보, 양질의 교사양성, 전문적인 교재발굴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현장교사 중심으로 한국형 열린교육의 방향모색을 제안하였다.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 모색연구’를 한 신극모⁶³⁾는 교육부는 우리나라의 열린교육 정착을 위해 교육현장의 상황개선을 속히 선택해야 하고, 또 심도 있는 열린교육에 대한 연수가 많은 교사들에게 주어져야 되며, 열린교육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교육자들의 양심, 정열, 창조력, 그리고 ‘열린마음’이 절대적인 요건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박제섬⁶⁴⁾은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급경영 개선방향 탐색에 관한 연구’에서 열린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교사의 열린교육 철학이 정립되고 수행할 능력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열린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심화를 위한 자율연수 풍토 조성으로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여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 한국형 열린교육으로의 점진적 개혁을 위해 교사 재교육과 교원 양성 교육시에 열린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3) 신극모,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인식 및 개선방안 모색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64) 박제섬,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급경영 개선방향 탐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III. 研究의 方法

1. 研究 對象

질문지 조사는 서울특별시의 각 지역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15개의 초등학교와 경기도 북부에서 열린교육을 실시하는 5개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아동은 서울시에서 열린교육을 앞장서 실천하는 남부교육청 관내 8학교의 3~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교사용 400부 중 에서 360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 90.0%) 아동용은 360부중 357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9.2%)

분석에 이용된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의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연구대상 교사의 집단별 분포

변 인 별	집 단	빈 도	%
성 별	남 성	78	22.0
	여 성	276	78.0
연 령	20 - 29세	38	10.6
	30 - 39세	150	42.0
	40 - 49세	114	31.9
	50세 이상	55	15.5
교 직 경 력	1년 미만	9	2.5
	1 - 5년	22	6.2
	6 - 10년	44	12.3
	11 - 15년	81	22.7
	16 - 20년	73	20.4
	21년 이상	128	35.9
열린교육경험년수	1년 - 2년	240	71.0
	3년 - 4년	91	26.9
	5년 이상	7	2.1
실 시 교 과	전 과 목	91	37.6
	부분과목	251	72.4
근 무 지	서 울	296	82.7
	경 기 도	62	17.3
전 체			100.0

<표 3> 연구대상 아동의 집단별 분포

변인별	집단	빈도	%
성별	남	175	49.3
	여	178	50.7
학년	3학년	81	22.9
	4학년	80	22.7
	5학년	91	25.8
	6학년	101	28.6
담임교사	남	69	19.5
	여	284	80.5
전체		355	100.0

2. 測定 道具

본 연구에서 활용된 연구의 도구로는 질문지 작성방법을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교사용 질문지 구성은 A. 열린교육에 관한 일반적 사항, B. 열린교육 실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C. 열린교육의 특별활동 운영에서 생기는 문제점, 열린교육에서 부수적으로 향상되는 점, 아동은 A. 종래의 수업방법, B. 열린수업의 다양한 방법, C. 열린학습의 평가, D. 열린교육의 특별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교사질문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린교육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 5 문항, 열린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서는 열린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학습내용 선정 및 재 구성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7문항, 열린 교수-학습을 위한 학습자료, 열린교육에서 학업성취도평가 문

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7문항, 열린교육의 특별활동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4문항, 열린교육실시로 부수적으로 향상되는 점에서 3문항 등 모두 2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아동의 질문지 내용은 종래의 수업방법 6문항, 열린수업의 다양한 학습 6문항, 열린학습의 평가 방법 3문항, 열린특별활동 내용 5문항 등 모두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선행연구 신극모 석사학위 논문⁶⁵⁾을 참조, 본 연구에 맞도록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 영역 및 문항 수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교사 설문지 구성 영역 및 문항수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 열린교육에 관한 일반적 인식	5	1 ~ 5
· 열린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1	6
· 열린교육의 교수-학습내용 선정 및 재구성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7 ~ 9
· 열린교육의 교수-학습내용 선정 및 재구성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10 ~ 12
· 열린교수-학습을 위한 학습자료 활용에 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13 ~ 15
· 열린교육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16 ~ 18
· 열린교육에서의 특별활동 운영에 관한 개선점	4	19 ~ 22
· 열린교육 실시로 부수적으로 향상 되는점	3	23 ~ 25

65) 신극모(1997),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지도 및 활성화 방안”,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미간행)

< 표 5> 아동 설문지 구성 영역 및 문항수

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 종래의 해오던 수업방법	6	1 ~ 6
· 열린수업의 학습방법	6	7 ~ 12
· 열린학습의 평가 방법	3	13 ~ 15
· 열린 특별활동의 방법	5	16 ~ 20

3. 資料 處理

회수된 설문지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사용하여 백분율(%)과 χ^2 검증을 실시하였고, 유의도 5% 수준에서 차이검증과 유관계수 C (Contingency Coefficient)로 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IV. 資料分析 및 解釋

1. 열린교육에 대한 敎師들의 見解

1) 열린교육에 관한 敎師들의 一般的인 견해

(1) 열린교육실시에 대한 생각

‘열린교육실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열린교육 실시에 대한 견해 ()%

변 인		적극찬성	찬 성	보 통	그저 그렇다	반 대	계	
성	남 여	1(1.9)	33(42.3)	10(12.8)	17(21.8)	17(21.8)	78(100.)	$\chi^2=18.842$ df=4 p=0.001***
		12(4.4)	102(37.0)	21(7.6)	116(42.0)	25(9.0)	276(100.)	
연령	20-29세	1(2.6)	16(42.1)	5(13.6)	14(36.8)	2(5.2)	38(100.)	$\chi^2=18.929$ df=12 p=0.030*
	30-39세	5(3.3)	50(33.3)	12(8.0)	65(43.3)	18(12.0)	150(100.)	
	40-49세	7(6.1)	49(43.0)	5(4.4)	39(34.2)	14(12.3)	114(100.)	
	50 이상	0(0.0)	24(43.6)	9(16.4)	14(25.5)	8(14.6)	55(100.)	
교직 경력	1년미만	0(0.0)	7(77.8)	0(0.0)	2(22.2)	0(0.0)	9(100.)	$\chi^2=25.322$ df=20 p=0.189
	1 - 5년	0(0.0)	8(36.4)	4(18.2)	8(36.4)	2(9.1)	22(100.)	
	6 -10년	2(4.6)	13(30.0)	2(4.6)	22(55.0)	5(11.4)	44(100.)	
	11-15년	4(4.9)	30(37.0)	7(8.6)	31(38.3)	9(11.1)	81(100.)	
	16-20년	5(6.9)	20(27.4)	7(9.6)	31(42.5)	10(13.7)	73(100.)	
	21 이상	2(1.6)	61(47.7)	11(8.6)	38(29.7)	16(12.5)	128(100.)	
경험 연수	1 - 2년	4(1.7)	80(33.3)	25(10.4)	104(43.3)	27(11.4)	240(100.)	$\chi^2=30.873$ df=8 p=0.001***
	3 - 4년	9(9.9)	44(48.4)	4(4.4)	23(25.3)	11(12.1)	91(100.)	
	5년이상	0(0.0)	6(85.7)	0(0.0)	1(14.3)	0(0.0)	7(100.)	
실시 교과	전과목	9(9.9)	41(45.1)	6(6.6)	4(29.7)	8(8.8)	91(100.)	$\chi^2=16.082$ df=4 p=0.003**
	부분과목	4(1.6)	94(37.5)	22(8.8)	99(39.4)	32(12.8)	251(100.)	
지역	서울	9(3.0)	107(36.2)	29(9.8)	115(28.9)	36(12.2)	296(100.)	$\chi^2=8.957$ df=4 p=0.062
	경기도	4(6.5)	32(51.6)	2(3.2)	18(29.0)	6(9.7)	62(100.)	
전 체		13(3.6)	139(38.7)	32(8.9)	133(37.0)	42(11.7)	359(100.)	

* p < .05 ** p < .01 *** p < .001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와 교사의 배경변인 간의 상호관련성은 “성별” “연령변” “열린교육을 실시해본 경험”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과”에서 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2가지 변인 즉 교직경력별, 지역별로 찬성하는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

전체적으로는 찬성 42.3%, 반대한다가 11.7%의 두 부류로 나타남으로써 열린교육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보다 남자가 열린교육찬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고, $C=0.23$ 으로 연관성이 적다. 연령별로는 20대, 40대, 50이상, 30대 순으로, 교직경력별로는 1년 미만, 21년 이상, 11-15년, 6년~10년 순으로 열린교육에 대한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열린교육 경험 년수별로 살펴보면 열린교육 경험연수가 많을수록 열린교육에 대한 찬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01$) $C=0.22$ 로 연관성이 적으며, 실시교과별로는 전과목을 실시하는 교사는 45.1%, 부분과목을 실시하는 교사는 37.5%가 ‘찬성한다’라고 반응함으로써 부분과목을 실시하는 교사에 비해 전과목을 실시하는 교사가 열린교육의 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0.21$ 로 관련성은 적으나, 이는 통계적으로도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험연수별로는 경험이 많을수록 찬성도가 높고 $p<.001$ 로 유의한 의미로 평가되나, $C=0.23$ 으로 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열린교육에 대한 아동 호응도

‘열린교육에 대한 아동 호응도 설문에 대하여’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 57.8%, 보통 24.3%, 낮은 편이 17.9%로 반응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방법은 열린교육교수-학습방법으로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고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경험

연수 $p < .01$ 수준, $C=0.21$ 로 상관관계는 적다. 실시교과 $p < .05$ 수준에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 역시 $C=0.29$ 로 연관성은 적다. 즉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교사들이 남 교사에 비하여 호응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젊은 교사층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경력이 적을수록 열린교육호응도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표 7 > 열린교육에 대한 아동 호응도 ()%

변 인		매우높 다	높은편임	보통임	낮은편임	매우낮다	계	
성	남 여	2(2.6)	29(37.2)	26(33.3)	21(26.90)	0(0.0)	78(100.)	$\chi^2=16.822$ df=4 p=0.002 **
		7(2.6)	166(66.4)	61(22.2)	37(13.5)	4(1.5)	275(100.)	
연령	20-29세	1(2.6)	19(50.0)	13(34.2)	5(13.2)	0(0.0)	38(100.)	$\chi^2=7.339$ df=12 p=0.834
	30-39세	2(1.3)	85(57.1)	35(23.5)	24(16.1)	3(2.1)	149(100.)	
	40-49세	5(4.4)	62(54.4)	26(22.8)	20(17.5)	1(0.8)	114(100.)	
	50 이상	1(1.8)	30(54.6)	13(23.6)	11(20.0)	0(0.0)	55(100.)	
교직 경력	1년미만	0(0.0)	7(77.8)	2(22.2)	0(0.0)	0(0.0)	9(100.)	$\chi^2=17.147$ df=20 p=0.643
	1 - 5년	0(0.0)	8(36.4)	9(40.9)	5(22.7)	0(0.03)	22(100.)	
	6 -10년	0(0.0)	20(45.2)	15(34.1)	8(18.2)	1(2.3)	44(100.)	
	11-15년	3(3.7)	51(63.0)	14(17.4)	12(14.8)	1(1.2)	81(100.)	
	16-20년	2(2.8)	39(54.2)	20(27.8)	10(13.9)	1(1.4)	72(100.)	
	21 이상	4(3.1)	72(56.3)	27(21.2)	24(18.8)	1(0.8)	108(100.)	
경험 연수	1 - 2년	2(0.8)	120(50.0)	67(28.0)	47(19.6)	4(1.7)	240(100.)	$\chi^2=30.127$ df=2 p=0.032 *
	3 - 4년	7(7.8)	63(73.0)	9(10.0)	11(12.2)	0(0.0)	90(100.)	
	5년이상	0(0.0)	5(71.4)	1(14.3)	1(14.3)	0(0.0)	7(100.)	
실시 교과	전과목	5(5.5)	57(60.6)	13(14.3)	16(17.6)	0(0.0)	91(100.)	$\chi^2=10.596$ df=4 p=0.032 *
	부분과목	4(1.6)	135(54.0)	68(27.2)	40(16.0)	3(1.2)	250(100.)	
지역	서울	5(1.7)	159(53.9)	75(25.4)	52(17.6)	4(1.4)	295(100.)	$\chi^2=7.401$ df=4 p=0.116
	경기도	4(6.5)	38(61.3)	12(19.4)	8(12.9)	0(0.0)	62(100.)	
전 체		9(2.5)	198(55.3)	87(24.3)	60(16.8)	4(1.1)	358(100.)	

* $p < .05$ ** $p < .01$

(3) 열린교육방법으로의 개선

열린교육방법으로 교수-학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반응결과를 제시하면 < 표 8>과 같다.

<표 8> 열린교육방법으로의 개선 ()%

변 인		꼭필요	약간필요	보통	필요없음	전혀불필요	계	
성	남 여	8(10.3)	42(53.9)	17(21.8)	10(12.8)	1(1.3)	78(100.0)	$\chi^2=1.636$ df=4 p=0.802
		34(12.4)	159(57.9)	45(16.4)	35(12.8)	2(0.7)	275(100.)	
연령	20-29세	5(13.2)	22(57.9)	5(13.2)	6(15.8)	0(0.0)	38(100.0)	$\chi^2=22.694$ df=12 p=0.030*
	30-39세	13(18.7)	89(59.7)	30(20.1)	14(9.4)	3(2.0)	149(100.)	
	40-49세	22(19.3)	59(51.8)	13(11.4)	20(17.5)	0(0.0)	114(100.)	
	50 이상	4(7.1)	32(57.1)	15(26.8)	5(8.9)	0(0.0)	56(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2(22.2)	7(77.8)	0(0.0)	0(0.0)	0(0.0)	9(100.0)	$\chi^2=22.935$ df=20 p=1.168
	1 - 5년	2(9.1)	12(54.6)	4(18.2)	4(18.2)	0(0.0)	22(100.0)	
	6 - 10년	3(6.8)	25(56.8)	8(18.2)	6(13.6)	2(4.6)	44(100.0)	
	11-15년	10(12.4)	51(63.0)	11(13.6)	8(9.9)	1(1.2)	81(100.0)	
	16-20년	12(16.9)	29(40.8)	17(23.9)	13(18.3)	0(0.0)	71(100.0)	
	21 이상	15(34.1)	78(38.6)	23(36.5)	13(29.5)	0(0.0)	29(100.0)	
경험 연수	1 - 2년	21(8.8)	133(55.4)	51(21.3)	34(14.2)	1(0.4)	40(100.0)	$\chi^2=18.273$ df=4 p=0.019*
	3 - 4년	20(22.0)	50(55.0)	9(9.9)	10(11.0)	2(2.2)	91(100.0)	
	5년이상	1(14.3)	5(71.4)	1(14.3)	0(0.0)	0(0.0)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20(21.7)	51(55.4)	10(10.8)	10(10.8)	1(1.1)	92(100.0)	$\chi^2=14.025$ df=4 p=0.011*
	부분과목	22(8.8)	140(56.2)	51(20.4)	34(13.7)	2(0.8)	249(100.)	
지역	서울	37(12.5)	165(55.7)	53(17.9)	38(12.8)	3(1.0)	296(100.)	$\chi^2=1.017$ df=4 p=0.907
	경기도	7(11.5)	37(60.7)	10(16.4)	7(11.5)	0(0.0)	61(100.0)	
전 체		44(12.4)	202(56.4)	64(17.9)	45(12.6)	3(0.8)	358(100.)	

* p < .05

전체적으로는 교사 자신이 72.3%, 열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교사 자신이 필요해서 열린교육을 실행한 교사가 타의에 의해 실행

행한 교사보다 많이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9세는 72.1%가 교사자신이 필요해서로 반응, 50세 이상은 64.2%로 반응함으로써 젊은 교사일수록 스스로 필요해서 열린교육을 실행하게 되었다고 나타났다. 또한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교사들은 100.0%가 '교사자신이 필요해서'라고 반응함으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은 교사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모두 $C=0.24$ 이하로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열린교육 실시에 도움을 얻은 계기

'열린교육 실시에 있어서 가장도움을 준 것은?'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열린교육에 관한 책을 보거나 교내 연수 및 교내 시범수업 참관 30.8%, 연수 기회 없이 동료 교사들이 하는 시범수업 참관 27.7%, 월간지 22.1%, 열린교육 연구회 모임과 타 학교 시범수업 참관 19.3%, 나타나, 심도 있는 연수 없이 스스로 책을 보거나 교내 시범수업 참관으로 열린교육교수-학습 방법을 접하게 된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열린교육교수-학습 방법을 터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린교육 경험 년수 별로는 1-2년 경험이 있는 교사는 서적, 교내연수, 수업참관 31.5%, 시범수업참관 29.8%, 연수, 연구회, 월간지 19.8%, 타교수업 18.9%,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열린교육에 관한 책을 읽어보거나 교내 연수 및 교내 시범수업 참관으로 열린교육교수-학습 방법을 접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으나 연수 기회 없이 동료 교사들이 하는 시범수업 참관으로 열린교육교수-학습 방법을 접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32.3%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9> 열린교육 실시에 도움을 얻은 계기 ()%

변 인		학회참관	시범수업 참관	월간지	동료교사 수업참관	계	
성	남 여	14(18.2)	21(27.3)	12(15.6)	30(39.0)	77(100.0)	$\chi^2=6.194$
		54(19.6)	89(32.4)	63(22.9)	69(25.1)	275(100.0)	df=3 p=0.103
연령	20-29세	10(26.3)	10(26.3)	4(10.5)	14(36.8)	38(100.0)	$\chi^2=9.740$
	30-39세	30(20.3)	41(27.7)	38(25.7)	39(26.4)	148(100.0)	df=9
	40-49세	20(17.7)	39(34.5)	27(23.9)	27(23.4)	113(100.0)	p=0.372
	50 이상	9(16.1)	19(33.9)	9(16.1)	19(33.9)	56(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3(33.3)	1(11.1)	1(11.1)	4(44.4)	9(100.0)	$\chi^2=20.141$
	1 - 5년	3(14.3)	7(33.3)	2(9.5)	9(42.9)	21(100.0)	df=15
	6 -10년	10(22.7)	10(22.7)	14(31.8)	10(22.7)	44(100.0)	p=0.167
	11-15년	17(21.3)	23(28.8)	17(21.3)	23(28.8)	80(100.0)	
	16-20년	14(19.2)	33(45.2)	11(15.1)	15(20.6)	73(100.0)	
	21 이상	22(17.2)	36(28.1)	33(25.8)	37(28.9)	128(100.0)	
경험 연수	1 - 2년	45(18.9)	71(29.8)	47(19.8)	75(31.5)	238(100.0)	$\chi^2=9.235$
	3 - 4년	20(22.0)	27(29.7)	26(28.6)	18(19.8)	91(100.0)	df=6
	5년이상	3(42.9)	2(28.6)	0(0.0)	2(28.6)	7(100.0)	p=0.167
실시 교과	전과목	18(19.6)	23(25.0)	21(22.8)	30(32.6)	92(100.0)	$\chi^2=3.302$
	부분과목	48(19.4)	84(33.9)	55(22.2)	61(24.6)	248(100.0)	df=3 p=0.347
지역	서울	55(18.7)	86(29.3)	70(23.8)	83(28.2)	294(100.0)	$\chi^2=4.767$
	경기도	14(22.6)	24(38.7)	8(12.9)	16(25.8)	62(100.0)	df=3 p=0.190
전 체		69(19.3)	110(30.8)	79(22.1)	99(27.7)	357(100.0)	

(5) 열린교육에 대한 전망

'열린교육의 전망'에 대해서 라는 설문문의 응답은 <표 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일시적 유행'으로의 응답이 53.8%로 반수 이상의 반응을 보였으며 학습에 기여 22.0%, 현상유지는 15.9%로 열린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50세 까지 골고루

<표 10> 열린교육에 대한 전망 ()%

변 인		학습에 기여	현상유지	잘모름	일시적 유행	계	
성	남 여	15(19.2)	14(18.0)	4(5.1)	45(57.7)	78(100.0)	$\chi^2=2.127$ df=3 p=0.546
		62(22.5)	43(15.6)	26(9.4)	145(52.5)	276(100.0)	
연령	20-29세	10(26.3)	0(0.0)	6(15.8)	22(57.9)	38(100.0)	$\chi^2=11.066$ df=9 p=0.271
	30-39세	31(20.7)	25(16.7)	13(8.7)	81(54.0)	150(100.0)	
	40-49세	25(21.9)	22(19.3)	7(6.1)	60(52.6)	114(100.0)	
	50 이상	13(23.6)	10(18.2)	4(7.3)	28(50.9)	55(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5(55.6)	0(0.0)	1(11.1)	3(33.3)	9(100.0)	$\chi^2=19.694$ df=15 p=0.184
	1 - 5년	3(13.6)	0(0.0)	4(18.2)	15(68.2)	22(100.0)	
	6 -10년	8(18.2)	8(18.2)	3(6.8)	25(56.8)	44(100.0)	
	11-15년	19(23.5)	15(18.5)	6(7.4)	41(50.6)	81(100.0)	
	16-20년	14(19.2)	8(11.0)	6(8.2)	45(61.6)	73(100.0)	
	21 이상	30(23.4)	25(19.5)	10(7.8)	63(49.2)	128(100.0)	
경험 연수	1 - 2년	47(19.6)	36(15.0)	19(7.9)	4(57.5)	240(100.0)	$\chi^2=11.420$ df=6 p=0.076
	3 - 4년	27(29.7)	17(18.7)	9(9.9)	38(41.8)	91(100.0)	
	5년이상	2(28.6)	3(42.9)	0(0.0)	2(28.6)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31(33.7)	19(20.7)	5(5.4)	37(40.2)	92(100.0)	$\chi^2=15.089$ df=3 p=0.002 **
	부분과목	46(18.4)	33(13.2)	23(9.2)	148(59.2)	250(100.0)	
지역	서울	65(22.0)	43(14.5)	23(7.8)	165(55.7)	296(100.0)	$\chi^2=4.277$ df=3 p=0.233
	경기도	14(22.6)	14(22.6)	7(11.3)	27(43.6)	62(100.0)	
전 체		79(22.0)	57(15.9)	30(8.4)	193(53.8)	359(100.0)	

** p < .01

50%이상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에서 가장 높은 57.9%를 나타냈으므로 앞으로 열린교육의 전망이 주목된다. 경력별로는 1-5년 사이가 68.2%로 가장 높아 일시적 유행으로 반응을 보였고, 지방보다는 서울이 더 일시적 유행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았으나 실시교과에서만 유의한 의미로 나타났다. ($< .01$) 이는 열린교육이 교사들의 자생적 교육방법이 아닌 지시나, 일방적인 강요의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 열린교육 방법도 과거의 흘러간 학습방법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C=0.21$ 로 연관성은 적은 편이다.

2) 열린교육 실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6) 열린교육 학습안 작성방법

'학습안 작성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 표 11 > 과 같다.

변인별로 모두 단일교과를 작성하는 교사들이 종합적 학습안을 작성하는 교사들보다 33.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열린교육 경험연수가 많을수록 단일교과를 선택하여 학습안을 작성 활용하는 것도 71.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과를 선정하여 주제별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31.2%로 높게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실시 교과별로도 단일과목을 선택 활용하는 것이 35.3%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단일교과를 선택하여 열린학습안을 사용하는 것이 유의한 의미로 평가되었다. ($p < .05$) 이는 모두 $C=0.05$ 로 연관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열린교육 학습안 작성 방법

()%

변 인		종합적 학습안	단일교과	교과별 주제별	교과선정 주제통합	계	
성	남 여	16(20.8)	26(33.8)	19(24.7)	16(20.8)	77(100.0)	$\chi^2=7.276$ df=3 p=0.064
		31(11.3)	92(33.6)	60(21.9)	91(33.2)	274(100.0)	
연령	20-29세	9(24.3)	9(24.3)	8(21.6)	11(29.7)	37(100.0)	$\chi^2=13.786$ df=9 p=0.130
	30-39세	17(11.4)	53(35.6)	28(18.8)	51(34.2)	149(100.0)	
	40-49세	10(8.9)	43(38.1)	28(24.8)	32(28.3)	113(100.0)	
	50 이상	11(19.6)	13(23.2)	16(28.6)	16(28.6)	56(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1(12.5)	3(37.5)	3(37.5)	1(12.5)	8(100.0)	$\chi^2=5.947$ df=15 p=0.981
	1 - 5년	4(18.2)	8(36.4)	4(18.2)	6(27.3)	22(100.0)	
	6 -10년	5(11.4)	16(36.4)	8(18.2)	15(34.1)	44(100.0)	
	11-15년	11(13.6)	26(32.1)	18(22.2)	26(32.1)	81(100.0)	
	16-20년	6(8.6)	24(34.3)	15(21.4)	25(35.7)	70(100.0)	
	21 이상	20(15.5)	41(31.8)	31(24.0)	37(28.7)	129(100.0)	
경험 연수	1 - 2년	33(13.8)	79(32.9)	55(22.9)	73(30.4)	240(100.0)	$\chi^2=8.790$ df=6 p=0.186
	3 - 4년	11(12.2)	24(26.7)	21(23.3)	34(37.8)	90(100.0)	
	5년이상	0(0.0)	5(71.4)	2(28.6)	0(0.0)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8(8.8)	22(24.2)	27(29.7)	34(37.4)	191(100.0)	$\chi^2=8.608$ df=3 p=0.035*
	부분과목	38(15.3)	88(35.3)	51(20.5)	72(28.9)	249(100.0)	
지역	서울	43(14.6)	98(33.2)	58(19.7)	96(32.5)	295(100.0)	$\chi^2=10.119$ df=3 p=0.018 *
	경기도	4(6.7)	20(33.3)	22(36.7)	14(23.3)	60(100.0)	
전 체		47(13.2)	118(33.1)	80(22.5)	111(31.2)	356(100.0)	

* p < .05

(7) 열린교육의 예체능교과 지도방법

열린교육의 예체능교과의 지도 방법에 대한 응답을 제시하면<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담임지도가 69.8%로 높게 나타났고, 전담교사가 지도하는 것도 그 다음 24.1%로 나타났다. 특히 기능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나타나

므로 초등학교도 예체능을 전문한 교사가 지도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별로도 별 차이가 없다. 성별로는 여교사가 남 교사

<표 12> 열린교육의 예체능 교과 지도 방법

()%

변 인		전담교사가	기능교사가	담임지도	전문인사	계	
성	남	18(23.7)	10(13.2)	48(63.2)	0(0.0)	76(100.0)	$\chi^2=8.500$ df=2 p=0.014*
	여	65(24.3)	11(4.1)	191(71.5)	0(0.0)	267(100.0)	
연령	20-29세	14(37.8)	2(5.4)	21(56.8)	0(0.0)	37(100.0)	$\chi^2=7.642$ df=6 p=0.265
	30-39세	36(24.7)	7(4.8)	103(70.6)	0(0.0)	146(100.0)	
	40-49세	23(21.3)	10(9.3)	75(69.4)	0(0.0)	108(100.0)	
	50 이상	11(20.0)	2(3.6)	42(76.4)	0(0.0)	55(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3(33.3)	0(0.0)	6(66.7)	0(0.0)	9(100.0)	$\chi^2=9.203$ df=10 p=0.513
	1 - 5년	6(28.6)	2(9.5)	13(61.9)	0(0.0)	21(100.0)	
	6 -10년	14(32.6)	2(4.7)	27(62.8)	0(0.0)	43(100.0)	
	11-15년	15(19.5)	4(5.2)	58(75.3)	0(0.0)	77(100.0)	
	16-20년	17(24.0)	8(11.3)	46(64.8)	0(0.0)	71(100.0)	
	21 이상	28(22.4)	5(4.0)	92(73.6)	0(0.0)	125(100.0)	
경험 연수	1 - 2년	61(26.0)	9(3.8)	165(70.2)	0(0.0)	235(100.0)	$\chi^2=16.631$ df=4 p=0.013*
	3 - 4년	21(24.1)	9(10.3)	57(65.5)	0(0.0)	87(100.0)	
	5년이상	1(16.7)	2(33.3)	3(50.0)	0(0.0)	6(100.0)	
실시 교과	전과목	18(20.2)	5(5.6)	66(74.2)	0(0.0)	89(100.0)	$\chi^2=1.555$ df=2 p=0.460
	부분과목	64(26.3)	16(6.6)	163(67.1)	0(0.0)	243(100.0)	
지역	서울	75(26.2)	16(5.6)	195(68.2)	0(0.0)	286(100.0)	$\chi^2=3.862$ df=2 p=0.145
	경기도	9(14.8)	5(8.2)	47(77.1)	0(0.0)	81(100.0)	
전 체		84(24.1)	21(6.0)	243(69.8)	0(0.0)	348(100.0)	

* p < .05

보다 담임지도가 특히 더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며 (p < .05), 경험연수가 작을수록 높은 비율로 나타나 교사

양성 제도에서 예체능의 지도가 활발해 짐을 보여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p < 0.01$) 그러나 $C=0.19$ 이하로 연관성은 적게 나타났다.

(8) 열린교육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발생에 대한 우려

‘열린교육으로 기초학력 발생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열린교육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발생에 대한 우려 (%)

변 인		학력정착	부진아 감소	실력저하 우려	부진아 발생우려	계	
성	남	6(7.7)	4(5.1)	43(55.1)	25(32.1)	78(100.0)	$\chi^2=2.036$ df=3 p=0.565
	여	11(4.2)	9(3.5)	152(58.5)	88(33.9)	260(100.0)	
연령	20-29세	3(8.3)	2(5.7)	26(72.2)	5(13.9)	36(100.0)	$\chi^2=17.175$ df=9 p=0.046 *
	30-39세	6(4.2)	4(2.8)	91(64.1)	41(28.9)	142(100.0)	
	40-49세	7(6.4)	6(5.5)	49(45.0)	47(43.1)	109(100.0)	
	50 이상	2(3.6)	2(3.6)	29(52.7)	22(42.0)	55(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2(22.2)	1(11.1)	3(33.3)	3(33.3)	9(100.0)	$\chi^2=27.646$ df=15 p=0.024*
	1 - 5년	0(0.0)	1(4.6)	19(86.4)	2(9.1)	22(100.0)	
	6 -10년	2(5.0)	3(7.5)	25(62.5)	10(25.0)	40(100.0)	
	11-15년	3(4.1)	3(4.1)	44(59.5)	24(32.4)	74(100.0)	
	16-20년	3(4.4)	3(4.4)	45(65.2)	20(29.0)	69(100.0)	
	21 이상	8(6.3)	8(6.3)	50(45.7)	56(44.1)	129(100.0)	
경험 연수	1 - 2년	11(4.8)	7(3.1)	29(56.6)	81(35.5)	228(100.0)	$\chi^2=13.125$ df=6 p=0.041 *
	3 - 4년	7(8.0)	4(4.6)	49(55.7)	28(38.8)	88(100.0)	
	5년이상	0(0.0)	2(28.6)	3(42.9)	2(28.6)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9(10.2)	6(6.8)	44(50.0)	29(33.0)	88(100.0)	$\chi^2=8.566$ df=3 p=0.036 *
	부분과목	8(3.4)	8(3.4)	140(68.6)	83(34.8)	239(100.0)	
지역	서울	11(3.9)	11(3.9)	163(51.2)	95(33.9)	280(100.0)	$\chi^2=5.760$ df=3 p=0.124
	경기도	7(11.3)	3(4.8)	32(51.6)	20(30.3)	62(100.0)	
전 체		18(5.2)	14(4.1)	195(56.9)	116(33.8)	343(100.0)	

* $p < .05$

전체적으로는 실력저하 56.9%, 부진아 발생우려 33.8%, 학력정착 5.2%, 부진아 감소 4.1%로 나타나 열린 수업으로 부진아 발생우려를 보여 주고 있다. 지역별로도 같은 우려를 보여 주며 성별, 교과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경험연수, 교과별 모두 유의한 의미를 보여주어 열린교육의 전망이 밝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C=0.21이하로 상호 관련성은 적은 편이다.

(9) 열린수업 실시의 빈도수

<표 14> 열린수업 실시의 빈도수

()%

변 인		매 일	수 시 로	주 1 회	지정된날	계	
성	남 여	4(5.1)	36(46.2)	9(11.5)	29(37.2)	78(100.0)	$\chi^2=4.987$ df=3 p=0.173
		4(1.5)	110(40.4)	39(14.3)	119(43.8)	272(100.0)	
연령	20-29세	1(2.7)	18(40.7)	5(13.5)	13(35.1)	37(100.0)	$\chi^2=8.74136$ df=9 p=0.321
	30-39세	4(2.7)	58(39.5)	18(12.2)	67(45.6)	147(100.0)	
	40-49세	3(2.7)	48(42.5)	12(10.6)	50(44.3)	113(100.0)	
	50 이상	0(0.0)	24(42.9)	13(23.2)	19(33.9)	56(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0(0.0)	5(62.5)	0(0.0)	3(37.5)	8(100.0)	$\chi^2=16.959$ df=15 p=0.462
	1 - 5년	0(0.0)	13(59.1)	4(18.2)	5(22.7)	22(100.0)	
	6 -10년	1(2.2)	15(4.9)	4(9.3)	23(53.5)	43(100.0)	
	11-15년	2(2.5)	29(36.7)	14(17.7)	34(43.0)	79(100.0)	
	16-20년	3(4.2)	33(45.8)	4(5.6)	32(44.4)	72(100.0)	
	21 이상	2(1.6)	54(41.9)	22(17.1)	51(39.5)	129(100.0)	
경험 연수	1 - 2년	4(1.7)	89(37.2)	32(5.6)	114(47.7)	239(100.0)	$\chi^2=18.331$ df=6 p=0.005 **
	3 - 4년	4(4.5)	46(51.7)	15(17.1)	24(27.0)	89(100.0)	
	5년이상	0(0.0)	6(85.7)	0(0.0)	1(14.3)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6(6.5)	43(46.7)	16(17.4)	27(29.4)	92(100.0)	$\chi^2=15.606$ df=3 p=0.001***
	부분과목	2(0.8)	104(41.9)	29(11.7)	113(45.6)	248(100.0)	
지역	서 울	5(1.7)	125(42.8)	40(13.7)	122(41.8)	292(100.0)	$\chi^2=2.478$ df=3 p=0.479
	경기도	3(4.8)	24(38.7)	8(12.9)	27(43.6)	62(100.0)	
전 체		8(2.3)	149(42.0)	48(13.5)	150(42.3)	343(100.0)	

** p < .01 *** p < .001

전체적으로는 지정된 42.3%, 수시로 42.0%, 주1회 13.5%를 보여주며, 매일 실시하는 교사도 2.3%로 나타났다. 열린교육의 경험연수가 많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성별, 연령별, 교직경력별, 지역별에서는 유사한 관계를 보여주며, 경험연수와 실시교과에서 각각 $p < .01$, $p < .001$ 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미로 평가되어 해가 거듭될수록 높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0.20$ 으로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 열린수업을 위한 학습자료의 투입시간

< 표 15 > 열린수업을 위한 학습자료의 투입시간

()%

변 인		충분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부족한편	계	
성	남 여	3(3.9)	12(15.4)	46(59.0)	17(21.8)	78(100.0)	$x^2=0.515$ df=3 p=0.916
		8(3.0)	37(13.7)	17(63.1)	55(20.3)	271(100.0)	
연령	20-29세	5(13.5)	9(54.3)	19(51.4)	4(10.8)	37(100.0)	$x^2=30.558$ df=9 p=0.001 ***
	30-39세	1(0.7)	26(17.8)	86(58.9)	33(22.6)	146(100.0)	
	40-49세	2(1.8)	8(7.1)	78(69.0)	25(22.1)	113(100.0)	
	50 이상	3(5.4)	6(10.7)	38(67.9)	9(16.1)	56(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2(22.2)	4(44.4)	3(33.3)	0(0.0)	9(100.0)	$x^2=39.772$ df=15 p=0.001***
	1 - 5년	1(4.8)	3(14.3)	14(66.7)	3(14.3)	21(100.0)	
	6 -10년	1(2.3)	9(20.9)	29(67.4)	4(9.3)	43(100.0)	
	11-15년	0(0.0)	14(17.5)	49(61.3)	17(21.3)	80(100.0)	
	16-20년	1(1.4)	7(9.9)	39(54.9)	24(33.8)	71(100.0)	
	21 이상	6(4.7)	12(9.4)	86(67.2)	24(18.8)	128(100.0)	
경험 연수	1 - 2년	8(3.4)	28(11.8)	154(64.7)	48(20.2)	238(100.0)	$x^2=8.846$ df=6 p=0.182
	3 - 4년	1(1.1)	15(17.1)	53(60.2)	19(21.6)	88(100.0)	
	5년이상	0(0.0)	3(42.9)	2(28.6)	2(28.6)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3(3.3)	13(14.3)	58(63.7)	17(18.7)	91(100.0)	$x^2=0.809$ df=3 p=0.847
	부분과목	5(2.0)	34(13.8)	154(62.4)	54(21.9)	247(100.0)	
지역	서울	8(2.8)	41(14.1)	183(62.9)	59(20.3)	291(100.0)	$x^2=0.801$ df=3 p=0.849
	경기도	3(4.8)	8(12.9)	38(61.3)	13(21.0)	62((100.0)	
전 체		11(3.1)	49(13.9)	221(62.6)	72(20.4)	353(100.0)	

*** p < .001

열린수업을 위한 학습자료의 투입시간은 대부분의 교사가 <표 15>와 같이 부족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62.6%, 부족한 편이다 20.4%, 적당하다와 충분하다가 7.0%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단위시간 내에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열린수업은 고정된 시간에는 충분한 목표도달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열린교육은 종전의 고정된 시간표를 가지고는 충실한 열린교육을 실시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예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교직경력과 연령에서 $p < .001$ 의 수준을 나타내어 유의한 의미로 평가되고 있다. $C=0.36$ 으로 중간정도의 관련성이 있다.

(11) 학습자료 제작시간의 부족원인

<표 16> 학습자료제작 시간의 부족 원인

변 인		공문서처리	수업과다	소년단체	사무과다	계	()%
성	남	11(14.5)	45(59.2)	1(1.3)	19(25.0)	76(100.0)	$x^2=7.902$ df=3 p=0.048 *
	여	14(5.5)	166(64.6)	1(0.4)	76(29.6)	257(100.0)	
연령	20-29세	3(9.1)	18(54.6)	1(3.0)	11(33.3)	33(100.0)	$x^2=8.347$ df=9 p=0.500
	30-39세	8(5.6)	97(67.8)	1(0.7)	37(25.9)	143(100.0)	
	40-49세	11(10.4)	64(60.4)	0(0.0)	31(29.3)	106(100.0)	
	50 이상	4(7.4)	32(59.3)	0(0.0)	18(33.3)	54(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0(0.0)	4(50.0)	0(0.0)	4(50.0)	8(100.0)	$x^2=22.285$ df=15 p=0.101
	1 - 5년	2(11.1)	8(44.4)	0(0.0)	8(44.4)	18(100.0)	
	6 -10년	2(4.9)	28(68.3)	2(4.9)	9(22.0)	41(100.0)	
	11-15년	5(6.3)	53(66.3)	0(0.0)	22(27.5)	80(100.0)	
	16-20년	6(9.1)	44(66.7)	0(0.0)	16(24.2)	66(100.0)	
	21 이상	11(8.9)	74(60.2)	0(0.0)	38(30.9)	123(100.0)	
경험 연수	1 - 2년	14(6.3)	148(66.4)	1(0.5)	60(26.9)	223(100.0)	$x^2=4.493$ df=6 p=0.610
	3 - 4년	10(11.2)	51(57.3)	1(1.1)	27(30.3)	89(100.0)	
	5년이상	1(14.3)	5(71.4)	0(0.0)	1(14.3)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12(14.3)	45(53.6)	0(0.0)	27(32.1)	84(100.0)	$x^2=10.794$ df=3 p=0.013**
	부분과목	12(5.1)	162(68.4)	2(0.8)	61(25.7)	237(100.0)	
지역	서울	17(6.1)	184(66.4)	2(0.7)	74(26.7)	277(100.0)	$x^2=10.828$ df=3 p=0.334
	경기도	9(15.0)	28(46.7)	0(0.0)	23(38.3)	60(100.0)	
전 체		26(7.7)	212(62.9)	2(0.6)	97(28.8)	337(100.0)	

** $p < .01$

'교수-학습자료 제작시간의 부족원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 표 16 > 과 같다

전체적으로 수업 시수 과다 62.9%, 사무과다 28.8%, 공문서처리 7.7% 청소년단체 참여 0.6%로 나타나 열린교육에서는 다양한 학습자료를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데 수업 시수 과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주당 수업 시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의 교과 전담 교사를 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경기도 보다 더 큰 반응을 보였으나 연령별, 교직경력별, 경험연수별로 유사한 반응을 나타냈고, 성별로는 여교사가 남 교사보다 더 많게 수업 시수의 과다를 호소하였으며, 실시교과별로는 부분과목을 실시하는 교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성별, 실시교과별로 $p < .01$ 의 수준을 보여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2) 열린 교수-학습을 위한 제작경비

'열린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경비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 표 17 > 과 같다.

열린교육을 위한 자료제작에 있어서 경비를 지금도 개인이 충당하는 교사가 47.0%로 나타남은 시사하는 점이 많다. 전액지원이 8.5%로 열린교육의 지원경비로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경기도보가 서울보다 지원의 비율은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는 없다. 여자가 남자보다 개인의 충당비율이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5$), 교직경력별로는 1년 미만 88.9%, 21년 이상 42.6%, 16-20년 39.4%, 6-10년 38.6%, 11-15년 37.2%로 나타나 경력이 많을수록 학교의 지원액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반응이 높아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7> 열린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 경비

() %

변 인		전액지원	부족한 편	개인이 충당	학교이외 의 도움	계	
성	남 여	9(11.7)	44(57.1)	21(27.3)	3(3.9)	77(100.0)	$\chi^2=15.044$ df=3
		21(7.7)	101(37.1)	142(52.2)	8(2.9)	272(100.0)	p=0.002 **
연령	20-29세	2(5.4)	16(43.2)	19(51.4)	0(0.0)	37(100.0)	$\chi^2=20.751$
	30-39세	14(9.5)	58(39.5)	74(50.3)	1(0.7)	147(100.0)	df=9
	40-49세	10(8.9)	43(38.1)	56(49.6)	4(3.5)	113(100.0)	p=0.014 *
	50 이상	4(7.3)	28(50.9)	17(30.9)	6(10.9)	55(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0(0.0)	8(88.9)	1(11.1)	0(0.0)	9(100.0)	
	1 - 5년	0(0.0)	8(38.1)	13(61.9)	0(0.0)	21(100.0)	
	6 -10년	5(11.4)	17(38.6)	21(47.7)	1(2.3)	44(100.0)	$\chi^2=31.089$
	11-15년	6(7.7)	29(37.2)	43(55.1)	0(0.0)	78(100.0)	df=15
	16-20년	10(14.1)	28(39.4)	33(46.5)	0(0.0)	71(100.0)	p=0.009**
	21 이상	9(7.0)	55(42.6)	55(42.6)	10(7.8)	129(100.0)	
경험 연수	1 - 2년	21(8.9)	92(39.0)	117(49.6)	6(2.5)	236(100.0)	$\chi^2=5.410$
	3 - 4년	8(8.8)	38(41.8)	41(45.1)	4(4.4)	91(100.0)	df=6
	5년이상	0(0.0)	4(57.1)	2(28.6)	1(14.3)	7(100.0)	p=0.492
실시 교과	전과목	4(4.4)	34(37.8)	48(53.3)	4(4.4)	90(100.0)	$\chi^2=3.640$ df=3
	부분과목	24(9.7)	102(41.3)	114(46.2)	7(2.8)	247(100.0)	p=0.303
지역	서 울	23(7.9)	120(41.1)	141(48.3)	8(2.7)	292(100.0)	$\chi^2=2.138$ df=3
	경기도	7(2.0)	26(7.4)	25(7.1)	3(0.9)	61(100.0)	p=0.544
전 체		30(8.5)	146(41.4)	166(47.0)	11(3.1)	353(100.0)	

** p < .01

(13) 열린교육후에 평가 방법

'열린교육 실시하고 학습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18>과 같다.

<표 18> 열린교육후 학습 평가 방법

()%

변 인		수시로평가	개발자료 활용	두가지 병행	수업중 평가	계	
성	남 여	20(26.3)	14(18.4)	6(7.9)	36(47.4)	76(100.0)	$\chi^2=6.417$ df=3 p=0.093
		75(28.1)	23(8.6)	32(12.0)	137(51.3)	267(100.0)	
연령	20-29세	8(22.9)	4(11.4)	6(17.1)	17(48.6)	35(100.0)	$\chi^2=13.444$ df=9 p=0.144
	30-39세	41(28.5)	11(7.6)	19(13.2)	73(50.7)	144(100.0)	
	40-49세	25(22.3)	16(14.3)	11(9.8)	60(53.6)	112(100.0)	
	50 이상	23(41.8)	6(10.9)	2(3.6)	24(43.6)	55(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0(0.0)	3(33.3)	0(0.0)	6(66.7)	9(100.0)	$\chi^2=33.593$ df=15 p=0.004 **
	1 - 5년	8(42.1)	0(0.0)	5(26.3)	6(31.6)	19(100.0)	
	6 -10년	17(40.5)	3(7.1)	6(14.3)	16(38.1)	42(100.0)	
	11-15년	16(20.0)	5(6.3)	12(15.0)	47(58.8)	80(100.0)	
	16-20년	15(21.4)	11(15.7)	5(7.1)	39(55.7)	70(100.0)	
	21 이상	41(32.5)	15(11.9)	10(7.9)	60(47.6)	126(100.0)	
경험 연수	1 - 2년	71(30.2)	25(10.6)	29(12.3)	110(46.8)	235(100.0)	$\chi^2=10.890$ df=6 p=0.092
	3 - 4년	22(25.6)	8(9.3)	7(8.1)	49(57.0)	86(100.0)	
	5년이상	1(14.3)	3(42.9)	0(0.0)	3(42.9)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27(31.4)	6(7.0)	7(8.1)	46(53.5)	86(100.0)	$\chi^2=2.874$ df=3 p=0.412
	부분과목	70(28.6)	30(12.2)	28(11.4)	117(47.8)	245(100.0)	
지역	서 울	88(30.9)	24(8.4)	30(10.5)	143(50.2)	285(100.0)	$\chi^2=11.703$ df=3 p=0.008 **
	경기도	10(16.1)	13(21.0)	8(12.9)	31(50.0)	62(100.0)	
전 체		98(28.2)	37(10.6)	38(10.9)	175(50.3)	348(100.0)	

** p < .01

전체적으로는 모든 변인에서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수업중 50.3%, 수시로 평가 28.8%, 개발자료활용 10.6%로 오늘날 지향하고 있는 수행평가 방법의 방향으로 평가 방법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수업중 평가를 1년 미만 66.7%, 11-15년 58.8%, 16-20년 55.7%, 21년 이상 47.6%, 6-10년 38.1%, 1-5년 31.6%로 대부분의 교사들이 열린교육을 실시하면서 수업 중에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적으로도 서울이나 경기도 모두 수업 중 평가를 반수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C=0.342$ 로 관련성은 중간정도 이다.

(14) 평가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표 19> 평가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변 인		급당아동 수	평가에 동참시킴	수행평가 방법실시	수업중 보조교사가	계	()%
성	남 여	43(55.1)	8(10.8)	20(25.6)	7(9.0)	78(100.0)	$x^2=12.724$
		187(70.3)	26(9.8)	27(10.2)	26(9.8)	266(100.0)	df=3 p=0.005 **
연령	20-29세	28(75.7)	3(8.1)	5(13.5)	1(2.7)	37(100.0)	$x^2=26.195$
	30-39세	104(70.3)	14(9.5)	17(11.5)	13(8.8)	148(100.0)	df=9
	40-49세	70(64.2)	12(11.0)	9(8.3)	18(16.5)	109(100.0)	p=0.002 **
	50 이상	28(52.8)	5(9.4)	17(32.1)	3(5.7)	52(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3(33.3)	1(11.1)	4(44.4)	1(11.1)	9(100.0)	
	1 - 5년	20(95.2)	0(0.0)	1(4.8)	0(0.0)	21(100.0)	
	6 -10년	30(69.8)	3(7.0)	7(16.3)	3(7.0)	43(100.0)	$x^2=21.129$
	11-15년	55(68.8)	9(11.3)	8(10.0)	8(10.0)	80(100.0)	df=15
	16-20년	48(67.6)	8(11.3)	7(9.9)	8(11.3)	71(100.0)	p=0.133
	21 이상	74(60.2)	13(10.6)	21(17.1)	15(12.2)	123(100.0)	
경험 연수	1 - 2년	156(67.5)	22(9.5)	34(14.7)	19(8.2)	231(100.0)	$x^2=6.976$
	3 - 4년	58(64.4)	10(11.1)	9(10.0)	13(14.4)	90(100.0)	df=6
	5년이상	4(57.1)	2(28.6)	1(14.3)	0(0.0)	7(100.0)	p=0.323
실시 교과	전과목	65(74.7)	7(8.1)	8(9.2)	7(8.1)	87(100.0)	$x^2=3.679$
	부분과목	156(63.7)	26(10.6)	37(15.1)	26(10.6)	245(100.0)	df=3 p=0.298
지역	서울	193(67.3)	31(10.8)	36(12.5)	27(9.4)	287(100.0)	$x^2=4.509$
	경기도	38(62.3)	3(4.9)	12(19.7)	8(13.1)	61(100.0)	df=3 p=0.211
전 체		231(66.2)	34(9.7)	48(13.8)	36(10.3)	349(100.0)	

** $p < .01$

'평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제시의 반응은 <표 19 >와 같다

전체적으로 학급당 인원수 줄임 66.2%, 수행평가 방법 실시 13.8%, 보조교사 활용 10.3%, 아동을 평가에 동참시킴 9.7%로 나타남으로써 학급당 인원수의 줄임을 열린교육평가의 문제점 해결로 지적했다. 교직경력 살펴보면 1-5년의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95.2% 아동수 줄임을 나타냄으로써 열린교육의 평가 방법 시 학급 아동 수를 줄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유의한 의미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실시교과별로는 전과목을 실시하는 교사는 63.7%가 인원수 과다로 응답함으로써 열린교육의 평가의 어려움을 학급당 아동수의 줄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별과 연령별에서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C=0.294$ 로 관련성은 적다. 성별로 보면 여교사는 70.3%, 남 교사는 55.1%로 학급당 인원수의 과다를 지적했고, 수행평가 방법 실시는 여교사보다 남 교사들이 더 많은 비율로 반응을 보였으며 이 또한 통계적으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열린교육의 특별활동 운영

(15) 열린교육에서 특별활동의 적합한 영역

'열린교육에서 특별활동 영역중 가장 적합한 영역은?' 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 표 20 >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조별활동 42.4%, 클럽활동 40.1%, 학급활동 13.0%로 나타남으로써, 열린교육에서 특별활동영역은 조별활동을 선호하고 있다.

실시교과별로는 전과목을 실시하는 교사는 조별활동을 46.7%, 클럽활동을 37.8%로 반응함으로써, 부분과목을 실시하는 교사는 클럽활동을

<표 20> 열린교육에서 특활의 적합한 영역

()%

변 인		클럽활동	학교활동	학급활동	조별활동	계	
성	남 여	30(38.5)	6(7.7)	15(19.2)	27(34.6)	78(100.0)	$x^2=7.215$ df=3 p=0.065
		110(40.6)	10(3.7)	29(10.7)	122(45.0)	271(100.0)	
연령	20-29세	14(36.8)	2(5.3)	12(31.6)	10(26.3)	38(100.0)	$x^2=17.917$ df=9 p=0.036
	30-39세	66(44.9)	5(3.4)	16(10.9)	60(40.8)	147(100.0)	
	40-49세	41(36.6)	7(6.3)	12(10.7)	52(46.4)	112(100.0)	
	50 이상	19(34.6)	2(3.6)	6(10.9)	28(50.9)	55(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2(22.2)	1(11.1)	4(44.4)	2(22.2)	9(100.0)	$x^2=25.134$ df=15 p=0.048 *
	1 - 5년	8(38.1)	1(4.8)	6(28.6)	6(28.6)	21(100.0)	
	6 -10년	24(55.8)	1(2.3)	4(9.3)	14(32.6)	43(100.0)	
	11-15년	31(38.8)	3(3.4)	12(15.0)	34(42.5)	80(100.0)	
	16-20년	33(46.5)	4(5.6)	6(8.5)	28(39.4)	71(100.0)	
	21 이상	43(33.6)	6(4.7)	14(10.9)	65(50.8)	128(100.0)	
경험 연수	1 - 2년	103(43.6)	3(1.3)	31(13.1)	99(42.0)	236(100.0)	$x^2=24.850$ df=6 p=0.001 ***
	3 - 4년	28(31.1)	8(8.9)	13(14.4)	41(45.6)	90(100.0)	
	5년이상	2(28.6)	2(28.6)	0(0.0)	3(42.9)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34(37.8)	7(7.8)	7(7.8)	42(46.7)	90(100.0)	$x^2=7.222$ df=3 p=0.065
	부분과목	102(41.3)	7(2.8)	37(15.0)	101(40.9)	247(100.0)	
지역	서울	118(40.3)	10(3.4)	33(11.3)	132(45.1)	293(100.0)	$x^2=11.606$ df=3 p=0.009**
	경기도	23(38.3)	6(10.0)	13(21.7)	18(30.0)	60(100.0)	
전 체		142(40.1)	16(4.5)	46(13.0)	150(42.4)	354(100.0)	

* p< .05 **p< .01 ***p< .001

41.3%, 조별활동을 40.9% 반응함으로써 클럽활동을 선호했다. 특별활동 영역은 경험연수와 지역별에서 p< .001수준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교직경력별에서도 p< .0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6) 열린특별활동에서 향상되는 점은

‘특별활동을 실시해서 향상되는 점이 있다면?’의 설문에 대해서 응

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 표 21>과 같다.

<표 21> 열린 특별활동에서 향상되는 점은

()%

변 인		발표력	좋은인성	협동심	주의력산만	계	
성	남 여	24(32.0)	10(13.3)	26(34.7)	15(20.0)	75(100.0)	$\chi^2=9.981$ df=3 p=0.019 *
		45(16.9)	36(13.5)	136(50.9)	50(18.7)	267(100.0)	
연령	20-29세	9(24.3)	7(18.9)	15(40.5)	6(16.2)	37(100.0)	$\chi^2=10.224$ df=9 p=0.333
	30-39세	34(23.1)	24(16.3)	67(45.6)	22(15.0)	147(100.0)	
	40-49세	18(16.8)	12(11.2)	51(47.7)	26(24.3)	107(100.0)	
	50 이상	10(18.9)	3(5.7)	29(54.7)	11(20.8)	53(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4(44.4)	1(11.1)	4(44.4)	0(0.0)	9(100.0)	$\chi^2=17.724$ df=15 p=0.277
	1 - 5년	5(22.7)	3(13.6)	9(40.9)	5(22.7)	22(100.0)	
	6 -10년	9(20.9)	10(23.3)	18(41.9)	6(14.0)	43(100.0)	
	11-15년	18(22.8)	15(19.0)	35(44.3)	11(13.9)	79(100.0)	
	16-20년	15(22.1)	4(5.9)	34(50.0)	15(22.1)	68(100.0)	
	21 이상	21(17.1)	13(10.6)	61(49.6)	28(22.8)	123(100.0)	
경험 연수	1 - 2년	50(21.6)	29(12.5)	104(44.8)	49(21.1)	232(100.0)	$\chi^2=20.552$ df=6 p=0.002 **
	3 - 4년	21(24.1)	11(12.6)	44(50.6)	11(12.6)	87(100.0)	
	5년이상	0(0.0)	4(66.7)	0(0.0)	2(33.3)	6(100.0)	
실시 교과	전과목	15(17.1)	19(21.6)	42(47.7)	12(13.6)	88(100.0)	$\chi^2=8.608$ df=3 p=0.035 *
	부분과목	53(21.8)	26(10.7)	111(45.7)	53(21.8)	243(100.0)	
지역	서울	60(21.1)	40(14.1)	126(44.4)	58(20.4)	284(100.0)	$\chi^2=5.159$ df=3 p=0.160
	경기도	12(19.7)	6(9.8)	36(59.0)	7(11.5)	61(100.0)	
전 체		72(20.8)	46(13.3)	162(46.8)	66(19.1)	346(100.0)	

* p< .05 **p< .01

전체적으로 협동심 46.8%, 발표력 20.8%, 주의력 산만 19.1%, 좋은 인성 13.3%, 나타남으로써 대다수 교사들이 협동심이 증가되고, 발표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경험연수별로 살펴보면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사들이 좋은 인성에 66.7%, 주의력 산만 33.3%로 반응을 나타남으로써 인성이 좋아지고 있다고 반응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01의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C=0.235로 낮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17) 열린교육이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이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 표 22 >와 같다.

<표 22> 열린교육이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

()%

변 인		개성과악 자율.적극 에 도움 성 신장	더 무질서	잘 모름	계		
성	남 여	14(18.0)	28(35.9)	32(41.0)	4(5.1)	78(100.0)	$x^2=6.886$ df=3 p=0.076
		28(10.3)	132(48.5)	90(33.1)	22(8.1)	272(100.0)	
연령	20-29세	8(21.6)	15(40.5)	10(27.0)	4(10.8)	37(100.0)	$x^2=7.997$ df=9 p=0.534
	30-39세	17(11.6)	71(48.3)	48(32.7)	11(7.5)	147(100.0)	
	40-49세	13(11.4)	47(41.2)	45(39.5)	9(7.9)	114(100.0)	
	50 이상	5(9.1)	29(52.7)	19(34.6)	2(3.6)	55(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4(44.4)	5(55.6)	0(0.0)	0(0.0)	9(100.0)	$x^2=20.482$ df=15 p=0.154
	1 - 5년	3(13.6)	7(31.8)	8(36.4)	4(18.2)	22(100.0)	
	6 -10년	5(11.9)	19(45.2)	15(35.7)	3(7.1)	42(100.0)	
	11-15년	9(11.4)	38(48.1)	29(36.7)	3(3.8)	79(100.0)	
	16-20년	7(9.6)	36(49.3)	22(30.1)	8(11.0)	73(100.0)	
	21 이상	15(11.7)	58(45.3)	47(36.7)	8(6.3)	128(100.0)	
경험 연수	1 - 2년	30(12.7)	97(40.9)	91(38.4)	19(8.0)	237(100.0)	$x^2=8.114$ df=6 p=0.230
	3 - 4년	9(10.0)	52(57.8)	24(26.7)	5(5.6)	90(100.0)	
	5년이상	1(14.3)	3(42.9)	2(28.6)	1(14.3)	7(100.0)	
실시 교과	전과목	9(9.9)	49(53.9)	27(29.7)	6(6.6)	91(100.0)	$x^2=3.449$ df=3 p=0.327
	부분과목	31(12.6)	105(42.5)	91(36.8)	20(8.1)	247(100.0)	
지역	서울	29(9.9)	134(45.9)	106(36.3)	23(7.9)	292(100.0)	$x^2=9.022$ df=3 p=0.029 *
	경기도	14(22.6)	29(46.8)	16(35.8)	3(4.8)	62(100.0)	
전 체		43(12.1)	163(45.9)	123(34.6)	26(7.3)	355(100.0)	

* p< .05

전체적으로는 자율. 적극성신장 45.9%, 더 무질서해짐 34.6%, 개성과악에 도움을 줌 12.1%, 잘 모름 7.3%로 나타남으로써 대부분의 교사들이 열린교육의 특별활동이 어린이들의 자율성과 적극성을 기르고, 어린이의 개성과악에 도움이 된다고 반응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 교사

는 좋은 인성이 53.9%, 여자는 58.8%로 각각 반응함으로써 남녀 모두 적극성 · 자율성 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여교사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우선한 것으로 반응을 나타냈다. 지역적으로도 경기도가 서울보다 어린이의 개성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반응함으로써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C=0.113$ 으로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교육 기자재 사용 빈도수

·열린교육에서 교육기자재 사용 빈도 수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 표 23>과 같다.

전체적으로 빈도 수 증가 42.1%, 평상시 그대로 40.7%, 보통 12.9%, 빈도 수 감소 4.3%로 나타남으로써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기자재 사용이 증가되었음을 나타냈다. 교직경력별로 살펴보면 16-20년 49.3%, 1-5년 47.6%, 11-15년 44.3%, 6-10년 44.2%, 21년 이상 37.3%, 1년 미만 순으로 나타나 경력에 관계없이 교육기자재 사용빈도수가 나타나며 이는 통계적으로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유관계수 $C=0.258$ 로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남 교사보다 여교사가 빈도수는 증가되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교육기자재 활용 빈도수

()%

변 인		빈도수증가	평상시 대로	그저 그렇다	빈도수 감소	계	
성	남 여	25(32.5)	38(49.4)	9(11.7)	5(6.5)	77(100.0)	$\chi^2=5.489$
		120(44.8)	103(38.4)	36(13.4)	9(3.4)	268(100.0)	df=3 p=0.139
연령	20-29세	13(36.1)	14(38.9)	5(13.9)	4(11.1)	36(100.0)	$\chi^2=8.648$
	30-39세	70(48.0)	56(38.4)	15(10.3)	5(3.4)	146(100.0)	df=9
	40-49세	42(37.5)	50(44.6)	16(14.3)	4(3.6)	112(100.0)	p=0.470
	50 이상	22(40.7)	21(38.9)	9(16.7)	2(3.7)	54(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1(12.5)	1(12.5)	3(37.5)	3(37.5)	8(100.0)	
	1 - 5년	10(47.6)	9(42.9)	2(9.5)	0(0.0)	21(100.0)	
	6 -10년	19(44.2)	17(39.5)	6(14.0)	1(2.3)	43(100.0)	$\chi^2=33.057$
	11-15년	5(44.3)	30(38.0)	10(12.7)	4(5.1)	79(100.0)	df=15
	16-20년	35(49.3)	27(38.0)	7(9.9)	2(2.8)	71(100.0)	p=0.005 **
	21 이상	47(37.3)	58(46.0)	16(12.7)	5(4.0)	126(100.0)	
경험 연수	1 - 2년	94(40.0)	98(41.7)	31(13.2)	12(5.1)	235(100.0)	$\chi^2=5.576$
	3 - 4년	45(51.1)	31(35.2)	9(10.2)	3(3.4)	88(100.0)	df=6
	5년이상	2(33.3)	4(66.7)	0(0.0)	0(0.0)	6(100.0)	p=0.472
실시 교과	전과목	43(48.3)	31(34.8)	11(12.4)	4(4.5)	89(100.0)	$\chi^2=1.893$
	부분과목	99(40.6)	104(42.6)	30(12.3)	11(4.5)	244(100.0)	df=3 p=0.595
지역	서울	119(41.5)	122(42.5)	37(12.9)	9(3.1)	287(100.0)	$\chi^2=6.558$
	경기도	28(45.2)	20(32.3)	8(12.9)	6(9.7)	62(100.0)	df=3 p=0.087
전 체		147(42.1)	142(40.7)	45(12.9)	15(4.3)	349(100.0)	

** p < .01

4) 열린수업에서 부수적으로 향상되는 점

(19) 교육기자재 활용 능숙도

·열린교육실시후 교육기자재 활용 능숙도?' 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 표 24>와 같다.

전체적으로 다양한 기자재 활용 58.7%, 많이 향상됨 32.3%, 활용기피 3.6%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열린교육으로 교육기자재 활용 면에서 기자재 종류가 다양해지고 활용 능숙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어 바람직한 방

향으로 열린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험연수별로 살펴본다면 다양한 기자재를 사용하고 많이 향상되었다가 5년 이상 100.0%에 가깝고, 3-4년 86.2%, 1-2년 91.0% 이상이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5$ 의 수준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고, $C = 0.245$ 로 낮은 상관이 있다. 지역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경기도 보다 서울의 교사들이 기자재 능숙도가 높으나 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24> 교육기자재 활용 능숙도

()%

변 인		많이향상	다양한 기자재활용	활용에 자신감	활용기피	계	
성	남 여	15(20.3)	48(64.9)	7(9.5)	4(5.4)	74(100.0)	$\chi^2=6.289$ df=3 p=0.098
		87(34.0)	147(57.4)	14(5.5)	8(3.1)	256(100.0)	
연령	20-29세	8(23.5)	24(70.6)	0(0.0)	2(5.9)	34(100.0)	$\chi^2=11.285$ df=9 p=0.257
	30-39세	49(35.5)	80(58.0)	7(3.1)	2(1.5)	138(100.0)	
	40-49세	32(29.6)	61(56.5)	9(8.3)	6(5.6)	108(100.0)	
	50 이상	14(26.4)	31(58.5)	6(11.3)	2(3.8)	53(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1(12.5)	7(87.5)	0(0.0)	0(0.0)	8(100.0)	$\chi^2=18.992$ df=15 p=0.214
	1 - 5년	7(36.8)	10(52.6)	0(0.0)	2(10.5)	19(100.0)	
	6 -10년	11(26.8)	28(68.3)	2(4.9)	0(0.0)	41(100.0)	
	11-15년	27(36.5)	43(58.1)	3(4.1)	1(1.4)	74(100.0)	
	16-20년	27(39.1)	35(50.7)	5(7.3)	2(2.9)	69(100.0)	
21 이상	31(25.4)	72(59.0)	12(9.8)	7(5.7)	122(100.0)		
경험 연수	1 - 2년	66(29.9)	135(61.1)	9(4.1)	11(5.0)	221(100.0)	$\chi^2=13.113$ df=6 p=0.041 *
	3 - 4년	31(35.6)	44(50.6)	11(12.6)	1(1.2)	87(100.0)	
	5년이상	1(16.7)	5(83.3)	0(0.0)	0(0.2)	6(100.0)	
실시 교과	전과목	23(26.7)	51(59.3)	9(10.5)	3(3.5)	86(100.0)	$\chi^2=2.924$ df=3 p=0.404
	부분과목	76(32.8)	134(57.8)	13(5.6)	9(3.9)	232(100.0)	
지역	서울	84(30.9)	162(59.6)	16(5.9)	10(3.7)	272(100.0)	$\chi^2=1.355$ df=3 p=0.716
	경기도	20(32.3)	34(54.8)	6(9.7)	2(3.2)	62(100.0)	
전 체		104(31.1)	196(58.7)	22(6.6)	12(3.6)	334(100.0)	

* $p < .05$

(20) 열린교육에 대한 학부모 호응도

'열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호응도 조사' 의 설문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 표 25>와 같다.

<표 25> 열린교육에 대한 학부모 호응도 ()%

변 인		높은 편	별차이 없음	잘 모름	낮은 편	계	
성	남 여	10(13.0)	31(40.3)	24(31.2)	12(15.6)	77(100.0)	$\chi^2=1.837$
		37(13.8)	123(45.7)	81(30.1)	28(10.4)	269(100.0)	df=3 p=0.607
연령	20-29세	5(13.5)	15(40.5)	13(35.1)	4(10.8)	37(100.0)	$\chi^2=3.811$
	30-39세	16(11.0)	69(47.3)	45(30.8)	16(11.0)	146(100.0)	df=9
	40-49세	19(17.0)	48(42.9)	33(29.5)	12(10.7)	112(100.0)	p=0.923
	50 이상	8(14.8)	25(46.3)	13(24.1)	8(14.8)	54(100.0)	
교직 경력	1년미만	3(37.5)	0(0.0)	5(62.5)	0(0.0)	8(100.0)	
	1 - 5년	2(9.1)	11(50.0)	7(31.8)	2(9.1)	22(100.0)	
	6 -10년	4(9.3)	19(44.2)	13(30.2)	7(16.3)	43(100.0)	$\chi^2=20.434$
	11-15년	13(16.5)	35(44.3)	23(29.1)	8(10.1)	79(100.0)	df=15
	16-20년	6(8.5)	33(46.5)	27(38.0)	5(7.0)	71(100.0)	p=0.156
	21 이상	20(15.9)	58(46.0)	30(23.8)	18(14.3)	126(100.0)	
경험 연수	1 - 2년	29(12.3)	107(45.3)	72(30.5)	28(11.9)	236(100.0)	$\chi^2=5.986$
	3 - 4년	15(17.1)	39(44.3)	25(28.4)	9(10.2)	88(100.0)	df=6
	5년이상	0(0.0)	5(83.3)	0(0.0)	1(16.7)	6(100.0)	p=0.425
실시 교과	전과목	13(14.6)	41(46.1)	21(23.6)	14(15.7)	89(100.0)	$\chi^2=4.325$
	부분과목	31(12.7)	115(46.9)	77(31.4)	22(9.0)	245(100.0)	df=3 p=0.228
지역	서울	33(11.5)	130(45.1)	87(30.2)	38(13.2)	288(100.0)	$\chi^2=10.522$
	경기도	15(24.2)	27(43.6)	18(29.0)	2(3.2)	62(100.0)	df=3 p=0.015 *
전 체		48(13.7)	157(44.7)	105(29.9)	41(11.7)	351(100.0)	

* p < .05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44.7%, 잘 모름 29.9%, 높은편임 13.7%, 낮은편 11.7% 순으로 나타남으로써 아직도 열린교육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인식은 잘 모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험연수별로 보면 5년 이상 83.3%, 1-2년 54.3%, 3-4년 44.3%로 별 차이 없다고 반응을 보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있는 것은 아니나,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학부모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보다 학부모들이 열린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0.158$ 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2. 열린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견해

1) 종래의 수업방법에 대한 아동 견해

(1)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26>과 같다.

<표 26> 숙제를 해결하는 방법

변 인		혼자서 해결	부모님과 해결	친구들과 함께해결	참고서를 보고 해결	계	()%
성	남	107(61.1)	15(8.6)	11(6.3)	42(24.0)	175(100.0)	$\chi^2=3.741$ df=3 p=0.291
	여	92(51.7)	16(9.0)	12(6.7)	58(32.6)	178(100.0)	
학년	3학년	60(74.1)	9(11.1)	7(8.6)	5(6.2)	81(100.0)	$\chi^2=50.875$ df=9 p=0.001***
	4학년	51(63.8)	11(13.8)	5(6.3)	13(16.3)	80(100.0)	
	5학년	45(49.5)	6(6.6)	7(7.7)	33(36.3)	91(100.0)	
	6학년	43(42.6)	5(5.0)	4(4.0)	49(48.5)	101(100.0)	
담임 교사	남	32(47.1)	4(5.9)	4(5.9)	28(41.2)	68(100.0)	$\chi^2=6.975$ df=3 p=0.073
	여	166(58.5)	27(9.5)	19(6.7)	72(25.4)	384(100.0)	
전 체		200(56.5)	31(8.8)	23(6.5)	100(28.2)	354(100.0)	

*** p < .001

전체적으로 혼자서 해결 56.5%, 참고서를 보고 28.2%, 부모님과 함께 8.8%, 친구들과 함께 6.5%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동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혼자서 하는 비율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혼자서 해결이 3, 4, 5, 6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참고서를 보고 해결하는 것은 6, 5, 4, 3학년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혼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01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0.365로 중간정도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숙제의 분량은 어떠한가

매일하고 있는 숙제의 분량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결과는 <표 27>과 같다.

<표 27> 숙제의 분량 ()%

변 인	너무많다	적당하다	적은편이다	안내준다	계		
성	남	20(11.4)	126(72.0)	24(13.7)	5(2.9)	175(100.0)	$\chi^2=3.074$ df=3 p=0.380
	여	11(6.2)	135(75.8)	27(15.2)	5(2.8)	178(100.0)	
학년	3학년	3(3.8)	66(83.5)	9(11.4)	1(1.3)	79(100.0)	$\chi^2=69.055$ df=9 p=0.001***
	4학년	6(7.3)	73(89.0)	3(6.0)	0(0.0)	82(100.0)	
	5학년	10(11.0)	75(82.4)	6(6.6)	0(0.0)	91(100.0)	
	6학년	12(11.9)	48(47.5)	32(31.7)	9(8.9)	100(100.0)	
담임 교사	남	14(20.6)	48(70.6)	6(8.8)	0(0.0)	68(100.0)	$\chi^2=17.600$ df=3 p=0.001***
	여	17(6.0)	214(75.1)	44(15.4)	10(3.5)	285(100.0)	
전 체		31(8.8)	262(74.0)	51(14.4)	10(2.8)	354(100.0)	

*** p < .001

전체적으로 보면 적당하다 74.0%, 적은 편이다 14.4%, 너무 많다 8.8%, 안 내준다 2.8% 순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숙제의 분량은 알맞게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보면 3, 4, 5학년은 적당하다가 80% 수준으로 비슷하나 6학년은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어린이가 많은 편으로 나타나고, 5,6학년에서 너무 많다고 응답한 어린이도 10%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C=0.404로 중간정도의 관계를 갖고있다. 담임교사별

로는 남 교사가 여교사보다 숙제의 양이 많은 편이고, 남교사에 비해 여교사는 3.5%가 안 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0.263$ 의 관련성을 갖고있다.

(3) 조사나 수집하는 숙제의 해결방법

‘조사하거나 수집하는 숙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28>와 같다.

<표 28> 조사나 수집하는 숙제 해결

변 인		현장에서 조사수집	부모와 같이해결	친구와 같이해결	못한다	계	()%
성	남	45(26.2)	61(35.5)	53(30.8)	13(7.6)	172(100.0)	$\chi^2=3.066$ df=3 p=0.382
	여	50(28.7)	55(31.6)	62(35.6)	7(4.1)	174(100.0)	
학년	3학년	19(24.4)	46(59.0)	11(14.1)	2(2.6)	78(100.0)	$\chi^2=76.132$ df=9 p=0.001***
	4학년	32(41.6)	26(33.8)	14(18.2)	5(6.5)	77(100.0)	
	5학년	24(26.7)	31(34.4)	33(36.7)	2(2.2)	90(100.0)	
	6학년	20(20.0)	12(12.0)	57(57.0)	11(11.0)	100(100.0)	
담임 교사	남	14(20.6)	10(14.7)	39(57.4)	5(7.4)	68(100.0)	$\chi^2=25.567$ df=3 p=0.001***
	여	81(29.1)	106(38.1)	76(27.3)	15(5.4)	278(100.0)	
전 체		95(27.5)	116(33.5)	115(33.2)	20(5.8)	346(100.0)	

*** $p < .001$

전체적으로 보면 부모와 같이 33.5%, 친구와 같이 33.2%, 현장에 직접 가서 27.5%, 못한다 5.8%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협력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으며 직접 현장까지 가서 해결하는 아동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은 열린교육의 본질과도 부합되는 좋은 현상으로 통계적으로도 $p < .001$ 수준의 유의한 의미로 평가되며, 담임교사별로는 남 교사는 친구와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제시하고, 여교사들은 부

모와 현장해결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 < .001$)

(4) 사용할 준비물의 준비방법

‘사용할 준비물은 언제 준비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를 제시하면 <표 29>과 같다.

<표 29> 사용할 준비물의 준비정도

변 인		미리내가 준비	부모님이 준비	등교시 준비	친구에게 서 빌림	계	()%
성	남	114(65.9)	6(3.5)	51(29.5)	2(0.6)	173(100.0)	$\chi^2=15.044$ df=3 p=0.002**
	여	146(83.4)	3(1.7)	26(14.9)	0(0.0)	175(100.0)	
학년	3학년	59(77.6)	2(2.6)	14(18.4)	1(1.3)	76(100.0)	$\chi^2=22.582$ df=9 p=0.007**
	4학년	58(73.4)	7(8.8)	14(17.7)	0(0.0)	79(100.0)	
	5학년	71(78.0)	0(0.0)	20(22.0)	0(0.0)	91(100.0)	
	6학년	71(70.3)	0(0.0)	29(28.7)	1(1.0)	101(100.0)	
담임 교사	남	53(77.9)	0(0.0)	15(22.1)	0(0.0)	68(100.0)	$\chi^2=2.790$ df=3 p=0.425
	여	207(73.9)	9(3.2)	62(22.1)	2(0.7)	280(100.0)	
전 체		260(74.7)	9(2.6)	77(22.1)	2(0.6)	348(100.0)	

** $p < .01$

전체적으로 미리 내가 준비한다 74.7%, 등교시에 준비한다 22.1%, 부모님이 준비해 준다 2.6%, 친구에게서 빌려쓴다 0.6%로 나타나 대부분 아동들의 준비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자 아동들 83.4%, 남자 아동들 65.9%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자 아동들은 등교시에 준비하는 비율이 높아 여자 아동들과 좋은 대조

를 보여 주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0.252$ 로 낮은 상관을 나타낸다.

(5) 1주일 동안의 준비물의 횟수

‘일주일동안 준비물은 몇 번이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30>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3~4번 45.9%, 1~2번 40.2%, 5~6번 7.7%, 매일 6.3% 순으로 나타나 아동들이 학습을 위한 준비물을 많이 하고 있는

<표 30> 1주일 동안의 준비물의 횟수

변 인		매일	5~6 번	3~4 번	1~2 번	계	()%
성	남	15(8.6)	19(10.9)	71(40.8)	69(39.7)	174(100.0)	$\chi^2=9.672$ df=3 p=0.222
	여	7(3.9)	8(4.5)	90(50.9)	72(40.7)	177(100.0)	
학년	3학년	8(10.1)	4(5.1)	38(48.1)	29(36.7)	79(100.0)	$\chi^2=28.961$ df=9 p=0.001***
	4학년	3(3.8)	15(18.8)	41(51.3)	21(26.3)	80(100.0)	
	5학년	4(4.4)	6(6.6)	37(40.7)	44(48.4)	91(100.0)	
	6학년	7(7.0)	2(2.0)	44(44.0)	47(47.0)	100(100.0)	
담임 교사	남	2(2.9)	2(2.9)	32(47.1)	32(47.1)	68(100.0)	$\chi^2=4.989$ df=3 p=0.173
	여	20(7.1)	25(8.9)	128(45.4)	109(38.7)	282(100.0)	
전 체		22(6.3)	27(7.7)	161(45.9)	141(40.2)	351(100.0)	

***p < .001

것으로 반응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 여 모두 거의 같은 비율로 준비물을 준비하는 것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일주일 동안 3~4번 이상이 4학년 73.9%, 3학년 63.3%, 6학년 53.0%, 5학년 51.7%로 나타나 고학년보다 중학년이 준비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01수준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C=0.283로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2) 열린학습에 대한 생각

(6) 선생님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공부

‘선생님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공부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1>와 같다.

전체적으로 실험과 병행해서 63.7%, 질문과 대답하면서 18.6%, 공동으로 문제해결 14.1%, 설명만 듣고 3.7% 순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종래의 수업 방법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실험과 병행해서 3학년

<표 31> 선생님과 어떤 방법의 공부가 제일 재미있나? ()%

변 인		설명만 듣고	질문과 대답	실험과 병행	공동으로 문제 해결	계	
성	남	9(5.1)	24(13.7)	120(68.2)	23(13.1)	176(100.0)	$\chi^2=7.545$ df=3 p=0.056
	여	4(2.3)	4(2.3)	106(59.6)	27(15.2)	178(100.0)	
학년	3학년	5(6.3)	5(6.3)	56(70.9)	13(16.5)	79(100.0)	$\chi^2=22.195$ df=9 p=0.008**
	4학년	1(1.2)	25(30.1)	47(56.6)	10(12.1)	83(100.0)	
	5학년	1(1.1)	14(15.4)	61(67.0)	15(16.5)	91(100.0)	
	6학년	3(3.0)	23(23.0)	52(52.0)	23(23.0)	101(100.0)	
담임 교사	남	2(3.0)	11(16.4)	42(64.1)	12(13.2)	67(100.0)	$\chi^2=1.132$ df=3 p=0.769
	여	11(3.8)	54(18.8)	184(64.1)	38(13.2)	287(100.0)	
전 체		13(3.7)	66(18.6)	226(63.7)	50(14.1)	355(100.0)	

**p < .01

70.9%, 5학년 67.0%, 4학년 56.6%, 6학년 47.5%로 나타나 아래 학년으로

갈수록 실험, 구체적 조작 등을 하면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1$ 수준으로 유의한 의미로 평가되었고, $C=0.244$ 로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7) 어떤 공부가 재미있나?

‘어떤 공부방법이 제일 재미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32와 같다.

전체적으로 조별로 공부할 때 46.5%, 장소를 옮겨가며 할 때 39.7%, 혼자 공부할 때 10.2%, 짝과 둘이서 할 때 3.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아

<표 32> 재미있는 공부 방법

변 인		조별로 공부	장소를 옮겨가며	짝과 둘이서	혼자공부 할 때	계	()%
성	남	86(48.9)	65(36.9)	8(4.6)	17(9.7)	176(100.0)	$\chi^2=1.905$ df=3 p=0.592
	여	78(44.1)	75(42.4)	5(2.8)	19(10.7)	177(100.0)	
학년	3학년	30(37.5)	38(47.5)	0(0.0)	12(15.0)	80(100.0)	$\chi^2=19.439$ df=9 p=0.022*
	4학년	36(45.0)	30(37.5)	6(7.5)	8(10.0)	80(100.0)	
	5학년	42(46.2)	42(46.2)	2(2.2)	5(5.5)	91(100.0)	
	6학년	56(55.5)	29(28.7)	5(5.0)	11(11.0)	101(100.0)	
담임 교사	남	31(45.6)	29(42.7)	2(2.9)	6(8.5)	68(100.0)	$\chi^2=0.476$ df=3 p=0.924
	여	132(46.9)	111(39.1)	11(3.9)	30(10.1)	284(100.0)	
전 체		164(46.5)	140(39.7)	13(3.7)	36(10.2)	353(100.0)	

*p < .05

동들이 조별로 토론하고 아는 것을 주고받으며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장소를 옮겨가며 특별실에서 공부하는 것도 흥미 있다고 반응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남, 여 성별에서는 거의 유사한 반응을 보였고, 담임교사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조별학습이 고학년 순으로 6학년, 5학년, 4학년, 3학년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고, 이동하면서 하는 공부는 3학년, 5학년, 4학년, 6학년 순으로

반응을 보여 고학년으로 갈수록 협력학습 및 토의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C=0.231$ 로 관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조별로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좋은가요?

‘조별로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동들의 응답결과는 <표 33>와 같다.

전체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친구가 알려주어서 57.3%, 친구에게서 배울 수 있어서 22.8%, 이해가 잘 되어 10.5%, 내 발표를 들어주어서 9.4%순으로 반응을 했다. 대체적으로 조별로 공부하면 협력학습이 잘 되어 상호보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다고 반응을 보였다. 학년별로는 6학년 69.3%, 5학년 57.2%, 4학년 50.6%, 3학년 48.1%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구에게서 배우고 알려줄 수 있어서 좋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통계적으로

<표 33> 조별로 공부할때 어떤점이 좋은가?

()%

변인	친구에게서 배움	이해가 잘되어	내발표를 들어주어	친구가 알려주어서	계	
성	남	37(21.2)	26(14.9)	17(9.8)	94(54.0)	174(100.0)
	여	43(24.3)	11(6.2)	16(9.0)	107(60.1)	177(100.0)
학년	3학년	23(29.1)	11(13.9)	7(8.9)	38(48.1)	79(100.0)
	4학년	20(25.3)	7(8.9)	12(15.2)	40(50.6)	79(100.0)
	5학년	21(23.1)	14(15.9)	4(4.4)	52(57.1)	91(100.0)
	6학년	16(15.8)	5(5.0)	10(9.9)	70(69.3)	101(100.0)
담임교사	남	12(17.7)	5(7.4)	6(8.8)	45(66.2)	68(100.0)
	여	68(24.2)	31(11.0)	27(9.6)	155(55.2)	281(100.0)
전체	80(22.8)	37(10.5)	33(9.4)	201(57.3)	351(100.0)	

* $p < .05$

로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C=0.23$ 으로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아동보다 여자아동이 더 협력학습이 잘 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게 평가되었다.

(9) 이동하면서 하는 공부

‘ 이동하면서 하는 공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4>와 같다.

<표 34> 이동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변 인		매시간 하고싶다	재미있는 편이다	가끔 하고싶다	번거로워 싫다	계	()%
성	남	16(9.3)	81(46.8)	38(22.0)	38(22.0)	173(100.0)	$\chi^2=1.623$ df=3 p=0.654
	여	15(8.5)	91(51.4)	41(23.2)	30(17.0)	177(100.0)	
학년	3학년	4(5.1)	34(43.6)	15(19.2)	25(32.1)	78(100.0)	$\chi^2=18.945$ df=9 p=0.026*
	4학년	8(9.9)	46(56.8)	14(17.3)	13(16.1)	81(100.0)	
	5학년	10(11.2)	45(50.6)	26(29.2)	8(9.0)	89(100.0)	
	6학년	8(7.9)	47(46.5)	24(23.8)	22(21.8)	101(100.0)	
담임 교사	남	4(5.9)	38(55.9)	17(25.0)	9(13.2)	68(100.0)	$\chi^2=3.560$ df=3 p=0.313
	여	27(9.6)	134(47.7)	61(21.7)	69(21.0)	281(100.0)	
전 체		31(8.9)	172(49.1)	79(22.6)	68(19.4)	354(100.0)	

* $p < .05$

전체적으로 재미있는 편이다 49.1%, 가끔 하고 싶다 22.6%, 번거로워 싫다 19.4%, 매시간 하고싶다 8.9%로 나타나 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동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4학년 56.8%, 5학년 50.6%, 6학년 46.5%, 3학년 43.6%로 중 학년 보다 고학년이 이동하면서 하는 공부를 더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p < .05$)

C=0.232로 낮은 상관을 나타낸다.

(10) 조별학습, 친구, 선생님과 의 학습

‘조별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모르는 것을 친구들에게 묻고, 나도 가르쳐 주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공부’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5>과 같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쉽다 83.1%, 똑같다 11.9%, 잘 모르겠다 4.0%, 이해가 더 어렵다 1.1%로 나타나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조별학습, 친구나 선생님과 공부하는 것이 이해하는데 더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표 35> 조별학습, 친구, 선생님과 의 학습

()%

변 인	이해가 쉽다	똑같다	잘 모르겠다	이해가 더 어렵다	계		
성	남	139(79.4)	24(13.7)	10(5.7)	2(1.1)	175(100.0)	$\chi^2=4.255$ df=3 p=0.235
	여	155(86.6)	18(10.1)	4(2.2)	2(1.1)	179(100.0)	
학년	3학년	67(83.8)	5(6.3)	8(10.0)	0(0.0)	80(100.0)	$\chi^2=19.631$ df=9 p=0.020*
	4학년	67(82.8)	11(13.6)	3(3.7)	0(0.0)	81(100.0)	
	5학년	76(83.5)	12(13.2)	0(0.0)	3(3.3)	91(100.0)	
	6학년	83(82.2)	14(13.9)	3(3.0)	1(1.0)	101(100.0)	
담임 교사	남	52(76.5)	13(19.1)	0(0.0)	3(4.4)	68(100.0)	$\chi^2=15.251$ df=3 p=0.002**
	여	242(84.9)	29(10.2)	13(4.6)	1(0.4)	285(100.0)	
전 체		294(83.1)	42(11.9)	14(4.0)	4(1.1)	354(100.0)	

* p < .05, ** p < .01

로는 3학년 83.8%, 5학년 83.5%, 4학년 82.8%, 6학년 82.2%로 전학년이 모두 83%이상 수준으로 조별학습을 선호 하였다. p < .01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C=0.234로 낮은 상관을 보여 주고있다.

(11) 학습코너의 좋은 점

‘교실에 있는 학습코너는 여러분의 공부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라는 설문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6>과 같다.

<표 36> 학습코너의 좋은점 ()%

변 인	많은 도움	도움을 주지못함	잘 모르겠다	도움이 안됨	계		
성	남	94(56.0)	19(11.3)	47(28.5)	8(4.8)	168(100.0)	$\chi^2=3.064$ df=3 p=0.382
	여	88(50.9)	29(16.8)	51(29.5)	5(2.9)	173(100.0)	
학년	3학년	53(69.8)	6(7.9)	16(21.2)	1(1.3)	76(100.0)	$\chi^2=37.682$ df=9 p=0.001***
	4학년	46(62.2)	4(5.4)	22(29.8)	2(2.7)	74(100.0)	
	5학년	50(55.0)	12(13.2)	27(29.7)	2(2.2)	91(100.0)	
	6학년	33(33.3)	26(26.3)	32(32.3)	8(8.1)	99(100.0)	
담임 교사	남	31(46.3)	17(25.4)	17(25.4)	2(3.0)	67(100.0)	$\chi^2=9.372$ df=3 p=0.025*
	여	151(55.3)	30(11.0)	81(29.7)	11(4.0)	273(100.0)	
전 체		182(53.4)	48(14.1)	98(28.7)	13(3.8)	341(100.0)	

*p< .05 *** p< .001

전체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 53.4%, 잘 모르겠다 28.7%, 도움을 주지 못한다 14.1%, 도움이 안 된다 3.8%로 나타나 열린학습 코너가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학년별로는 3학년 69.8%, 4학년 62.2%, 5학년 55.0%, 6학년 33.3%로 아래 학년으로 갈수록 열린학습코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001수준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C=0.324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2) 새 단원을 위한 진단평가

‘새로운 단원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아는지 시험을 봅니까?’라는 설문
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7> 새 단원을 위한 진단평가

							()%
변 인		정식시험 을 치름	쪽지시험	선생님이 질문	시험없이 배움	계	
성	남	17(9.8)	82(47.4)	25(14.5)	49(28.3)	173(100.0)	$\chi^2=6.068$ df=3 p=0.108
	여	14(7.8)	65(36.3)	35(19.6)	65(36.3)	179(100.0)	
학년	3학년	14(17.5)	33(41.3)	16(20.0)	17(21.3)	80(100.0)	$\chi^2=29.690$ df=9 p=0.001***
	4학년	9(11.3)	38(47.5)	6(7.5)	27(33.8)	80(100.0)	
	5학년	6(6.6)	33(36.3)	13(14.3)	39(42.9)	91(100.0)	
	6학년	2(2.0)	44(43.6)	25(24.8)	30(29.7)	101(100.0)	
담임 교사	남	3(4.4)	30(44.1)	12(17.7)	23(33.8)	68(100.0)	$\chi^2=2.028$ df=3 p=0.567
	여	28(9.9)	118(41.6)	47(16.6)	91(32.0)	284(100.0)	
전 체		31(8.8)	148(41.9)	60(17.0)	114(32.3)	353(100.0)	

*** p < .001

전체적으로 쪽지시험을 본다 41.9%, 시험 없이 배운다 32.3%, 선생님이 질문한다 17.0%, 정식시험을 본다 8.8%로 나타나 정식 시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년별로는 4학년 47.5%, 6학년 43.6%, 3학년 41.3%, 5학년 36.3%로 전학년 끌고루 정식 시험이 줄어들고 있음을 나타낸다. p < .001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C=0.284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평가방법을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은 문제가 되었다.

(13) 매 시간후의 선생님의 평가 방법

‘매 시간이 끝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8>와 같다.

<표 38> 매 시간후 선생님의 평가 방법 ()%

변 인		쪽지 시험보기	몇가지를 질문	가끔 물어본다	그냥 시간을마침	계	
성	남	20(12.0)	37(22.2)	45(27.0)	65(39.0)	167(100.0)	$\chi^2=5.503$ df=3 p=0.138
	여	21(11.9)	57(32.4)	46(26.1)	52(29.6)	176(100.0)	
학년	3학년	5(6.6)	23(30.3)	17(22.4)	31(40.8)	76(100.0)	$\chi^2=18.101$ df=9 p=0.034*
	4학년	12(15.6)	24(31.2)	15(19.5)	26(33.8)	77(100.0)	
	5학년	7(7.9)	16(18.0)	33(37.1)	33(37.1)	89(100.0)	
	6학년	17(16.8)	31(30.7)	25(24.8)	28(27.7)	101(100.0)	
담임 교사	남	11(16.2)	13(19.1)	19(27.9)	25(36.8)	68(100.0)	$\chi^2=3.630$ df=3 p=0.304
	여	30(10.9)	81(29.5)	72(26.2)	92(33.5)	275(100.0)	
전 체		41(11.9)	94(27.3)	91(26.5)	118(34.3)	344(100.0)	

* p < .05

전체적으로 그냥 시간을 마친다 34.3%, 몇 가지 질문 27.3%, 가끔 물어본다 26.5%, 쪽지시험을 본다 11.9%로 나타나 매 시간 후 간단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3학년 40.8%, 5학년 37.1%, 4학년 33.8%, 6학년 27.7%로 학년이 낮을수록 매 시간 후 간단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C=0.223으로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14) 단원정리의 평가방법

‘한 단원을 다 배우고 나서 어떻게 정리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39>과 같다.

전체적으로 쪽지시험을 본다 53.4%, 말로 질문한다 21.2%, 정식시험으로 정리한다 14.5%, 그냥 지나친다 10.9%로 나타나 단원을 마치고 정식시험을 보는 기회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4학년 66.2%, 6학년 62.0%, 5학년 53.9%, 3학년 28.0%로 학년에 구별 없이 정식평가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 .001$ 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C=0.354$ 로 중간정도의 관련성을 갖고있다.

<표 39> 단원 정리의 평가 방법

변 인		정식시험 으로정리	쪽지시험	말로질문	그냥 지나친다	계	()%
성	남	31(18.6)	79(47.3)	32(19.2)	25(15.0)	167(100.0)	$\chi^2=12.417$ df=3 p=0.006**
	여	17(9.9)	102(59.7)	40(23.4)	12(7.0)	171(100.0)	
학년	3학년	17(22.7)	21(28.0)	24(32.0)	13(17.3)	75(100.0)	$\chi^2=49.954$ df=9 p=0.001***
	4학년	16(21.6)	49(66.2)	5(6.8)	4(5.4)	74(100.0)	
	5학년	13(14.6)	48(53.9)	22(24.7)	6(6.7)	89(100.0)	
	6학년	3(3.0)	62(62.0)	21(21.0)	14(14.0)	100(100.0)	
담임 교사	남	6(9.1)	41(62.1)	10(15.2)	9(13.6)	66(100.0)	$\chi^2=4.863$ df=3 p=0.182
	여	43(15.8)	139(51.1)	62(22.8)	28(10.3)	272(100.0)	
전 체		49(14.5)	181(53.4)	72(21.2)	37(10.9)	339(100.0)	

** $p < .01$ *** $p < .001$

4) 열린 특별활동에 대한 생각

(15) 반장, 부 반장의 선출방법

‘반장, 부 반장은 어떻게 뽑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40>과 같다.

<표 40> 반장·부반장의 선출 방법

변 인		누구든지 뽑힘	공부잘 하는 아이만	힘센 아이가 뽑힘	착한 아이가 뽑힘	계	()%
성	남	87(50.3)	35(20.2)	7(4.1)	44(25.4)	173(100.0)	$\chi^2=1.120$ df=3 p=0.772
	여	91(51.1)	34(19.1)	4(2.3)	49(27.5)	178(100.0)	
학년	3학년	23(28.8)	16(20.0)	6(7.5)	35(43.8)	80(100.0)	$\chi^2=41.738$ df=9 p=0.001***
	4학년	38(47.5)	17(21.3)	0(0.0)	25(31.3)	80(100.0)	
	5학년	48(52.8)	19(20.9)	1(1.1)	23(25.3)	91(100.0)	
	6학년	68(68.0)	17(17.0)	4(4.0)	11(11.0)	100(100.0)	
담임 교사	남	48(70.6)	5(7.4)	3(4.4)	12(17.7)	68(100.0)	$\chi^2=15.927$ df=3 p=0.001***
	여	130(45.9)	63(22.3)	8(2.8)	82(29.0)	283(100.0)	
전 체		178(50.6)	69(19.6)	11(3.1)	94(26.7)	352(100.0)	

*** p < .001

전체적으로 누구든지 뽑힌다 50.6%, 착한 아이가 뽑힌다 26.7%, 공부 잘하는 아이만 뽑힌다 19.6%, 힘센 아이가 뽑힌다 3.1%로 나타나 대체로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년별로는 6학년 68.0%, 5학년 52.8%, 4학년 47.5%, 3학년 28.8%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와 관계없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능력이 있으면 반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01로 매우 높은 수준의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C=0.332로 중간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6) 클럽활동 부서의 선택

‘클럽활동 부서는 어떻게 정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41>와 같다.

<표 41> 클럽 활동 부서의 선택

변 인		하고싶은 부서선택	하고싶어 도 못함	선생님이 정해줌	하고싶은 부서없음	계	()%
성	남	52(30.6)	100(58.8)	8(4.7)	10(5.9)	170(100.0)	$\chi^2=1.775$ df=3 p=0.620
	여	58(33.1)	101(57.7)	4(2.3)	12(6.9)	175(100.0)	
학년	3학년	13(16.7)	48(61.6)	8(10.3)	9(11.5)	78(100.0)	$\chi^2=33.184$ df=9 p=0.001***
	4학년	30(38.5)	40(51.3)	4(5.1)	4(5.1)	78(100.0)	
	5학년	37(41.1)	48(53.3)	0(0.0)	5(5.6)	90(100.0)	
	6학년	30(30.3)	65(65.7)	0(0.0)	4(4.0)	99(100.0)	
담임 교사	남	27(39.7)	37(54.4)	0(0.0)	4(5.9)	68(100.0)	$\chi^2=4.777$ df=3 p=0.189
	여	83(30.1)	164(59.1)	12(4.4)	18(6.5)	276(100.0)	
전 체		111(32.1)	201(58.1)	12(2.5)	22(6.4)	346(100.0)	

*** P < .001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한다 58.1%, 하고싶은 부서를 선택한다 32.1%, 하고싶은 부서가 없다 6.4%, 선생님이 정해준다 3.5%로 나타나 하고싶은 부서가 없어 소질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학년별로는 6학년 65.7%, 3학년 61.6%, 5학년 53.3%, 4학년 51.3%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자기 적성에 맞는 특별활동을 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 < .001) C=0.302로 중간정도의 상호관련을 보여주고 있다.

(17) 클럽활동에 대한 생각

'클럽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42>과 같다.

<표 42> 클럽활동에 대한 견해

변 인		매우 흥미있음	평범하게 생각	유익하지 않다	안하는 것이 나음	계	()%
성	남	86(50.3)	52(30.4)	81(4.7)	24(14.0)	171(100.0)	$\chi^2=7.438$ df=4 p=0.114
	여	101(57.7)	49(28.0)	13(7.4)	12(6.9)	175(100.0)	
학년	3학년	34(44.7)	24(31.6)	3(4.0)	15(19.7)	76(100.0)	$\chi^2=27.334$ df=12 p=0.007**
	4학년	53(67.1)	16(20.3)	3(3.8)	7(8.9)	79(100.0)	
	5학년	55(61.1)	24(26.7)	4(4.4)	6(6.7)	90(100.0)	
	6학년	45(44.6)	37(36.6)	11(10.9)	8(7.9)	101(100.0)	
담임 교사	남	27(39.7)	23(33.8)	10(14.7)	8(11.8)	68(100.0)	$\chi^2=14.829$ df=4 p=0.005**
	여	162(58.2)	78(28.1)	11(4.0)	27(9.7)	278(100.0)	
전 체		189(54.5)	101(29.1)	21(6.1)	36(10.4)	347(100.0)	

** p < .01

전체적으로 매우 흥미 있다 54.5%, 평범하게 생각한다 29.1%, 안 하는 것이 낫다 10.4%, 유익하지 않다 6.1%로 나타나 대체로 흥미 있게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4학년 67.1%, 5학년 61.1%, 3학년 44.7%, 6학년 44.6%로 많은 아동들이 흥미 있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는 여교사가 더 흥미 있게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도 p < .01수준으로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C=0.278로 상관이 어느 정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8) 학급문고와 학교도서관의 이용

‘학급문고와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합니까?’라는 설문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43>와 같다.

전체적으로 가끔 이용한다 55.3%, 두 군데 모두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24.8%, 학급도서관은 자주 이용하나 도서관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표 43> 학급문고와 학교도서관의 이용 ()%

변 인		자주 이용함	가끔 이용함	학급도서관 많이 학교도서관 적게	두군데별 이용하지않음	계	
성	남	7(4.1)	87(50.3)	25(14.5)	54(31.2)	173(100.0)	$\chi^2=7.552$ df=3 p=0.056
	여	8(4.6)	105(60.7)	28(16.2)	32(18.5)	173(100.0)	
학년	3학년	7(9.2)	50(63.8)	5(6.6)	14(18.4)	76(100.0)	$\chi^2=36.208$ df=9 p=0.001***
	4학년	2(2.5)	51(64.6)	14(17.7)	12(15.2)	79(100.0)	
	5학년	4(4.4)	47(52.2)	21(23.3)	18(20.0)	90(100.0)	
	6학년	2(2.0)	43(42.6)	14(13.9)	42(41.6)	101(100.0)	
담임 교사	남	4(5.9)	39(57.4)	9(13.2)	16(23.5)	68(100.0)	$\chi^2=0.903$ df=3 p=0.825
	여	11(4.0)	152(54.7)	45(16.2)	70(25.2)	278(100.0)	
전 체		15(4.3)	192(55.3)	54(15.6)	86(24.8)	347(100.0)	

*** p < .001

15.6%, 자주 이용한다 4.3%로 나타나 학급도서관의 이용이 많은 것으로 보아 내실 있는 학급문고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학년별로는 3학년 65.8%, 4학년 64.6%, 5학년 52.2%, 6학년 42.6%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학급도서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C=0.314로 관련성은 중간 정도이나 통계적으로는 p < .001의 수준으로 매우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V. 要約, 結論 및 提言

1. 要約

본 연구는 열린교육 실시에 따른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열린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헌을 고찰하며, 열린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교사와 열린 학습을 하고있는 아동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봄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열린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교사, 서울의 아동들에게 설문지 응답을 받아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는 대부분 찬성하나 일부는 마지못해 받아들여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나 경험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실시하여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 교사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열린교육에 대한 아동들의 호응도는 높으나 대다수 교사들은 아동들의 실력저하를 우려하며, 젊은 교사들은 열린교육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연구학교의 수업참관이나 동료교사의 열린수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관리자들도 관심이 높아져 지원도 해주나 아직도 교사들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넷째, 열린교육의 장애요인으로 학급당 인원수 과다와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시수 과다를 들고 있다. 또 일부는 열린수업 방법도 일시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다섯째, 열린교육의 예·체·능 지도가 점점 전담교사와 기능교사의 지도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자들은 더 많은 전담교사 배치에 힘써야 하겠다.

여섯째, 열린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제작과 사용에서 시간부족을 들고 있고 자료제작에서 교사에게 부담을 주어 자금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이 문제들은 점차 해소되리라 생각된다..

일곱째, 학습방법의 다양성과 함께 평가도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공식적 시험이 적어졌다. 또 평가의 문제점으로 과인수 학급을 들고있어 열린수업이 정착되어 갈수록 교사들의 업무량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여덟째, 특별활동 중 가장 적합한 영역은 조별활동이라고 생각하며 일부교사들은 클럽활동을 원하고 있다. 아동들은 원하는 특별활동 영역에 교사의 부족과 부서가 없어 특기신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동이 많아 앞으로 특별활동영역의 확대실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아홉째, 특별활동을 통해 협동심, 적극성, 좋은 인성, 발표력 향상을 꾀고 있고, 이것은 조별활동과도 관계가 깊어 앞으로 조별활동 및 특별활동 영역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열째, 열린교육으로, 생활지도에서 자율성, 자주성, 학습자 개성파악등 순기능이 생기는가 하면, 무질서, 소란스러움, 자유분방 등 역기능도 발생하므로 올바른 정착을 위해 생활지도 면에서 더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열한째. 열린교육으로 교육기자재 활용 빈도수와 활용 능숙도가 많이 향상되었고 열린수업으로 어린이 교육에 학부모 호응도도 높아져 가고 있어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 結論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교육이 확산된지도 4-5년이 지나 모든 교사들이 열린교육의 방향과 성격을 알고있으나 확고한 신념과 수행능력을 아직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둘째,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해 교사들의 교육적 요구를 교육행정가들은 더 듣고,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리라 본다. 자료준비, 양질의 자료공급, 자료관리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내실 있는 한국적 열린교육이 정착되도록 교육행정가들의 과감한 투자 및 지원을 하고, 형식적 열린수업이 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다양한 열린학습에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다인수 학급의 평가 방법의 모델이 필요하다. 다양한 평가방법은 전문가나 전문연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시기에 맞는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적기에 보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현장에서는 적절한 평가방법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넷째, 학부모와 아동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방법과 교육 재정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부단히 연찬 하고, 학부모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자원봉사나, 간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3. 提言

열린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실시되고 있으나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가 불가피한 일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교사는 확고한 교육관을 갖고 지도할 수 있고, 아동은 저마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현장이 될 것을 바라며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해 교육행정당국은 교사들에게 연수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며,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습자료의 구매, 제작, 보급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학습방법에 맞는 적합한 학습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당국은 알맞은 평가문제를 개발하여 적기에 맞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셋째, 학부모들은 학교교육의 정상적 성장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며 편향적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교사들은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해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개발하고 익혀 정열과 양심으로 새 시대에 맞는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흥미와 욕구에 맞는 다양한 학습으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國內文獻

- 강영은, “열린교육의 이념과 운영방법”, 서울열린교육연구회, 서울열린
교육자을연수교재, 서울 : 서울열린교육연구회, 1996.
- 경기도교육청, 「교육을 열면 미래가 보인다」, 경기 : 경기도교육청,
1996.
- 교육부, 「7차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 1997.
「평생교육 백서」, 1998.
- 권낙원, 「열린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현대교육, 1997.
- 길형석, “운현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
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4.
- 김경혜, “한국전통교육속의 열린교육적 요소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 김문빈, 박종원, 「열린교육 첫걸음」, 서울 : 지성의 샘, 1994.
- 김은산, “열린교육의 이론적 고찰”,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
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4.
- 김인애, “Open Educat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청구논문, 1976.
- 김희배, “수업체제 설계에 기초한 교실수업과정의 혁신방안 탐색”, 한
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1.
- 남승희, “일제식 수업의 탈피를 위한 교육의 개혁”, 한국교육논총 제3

- 집. 1991.
- 문지영, “열린교육의 가능성과 한계”,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박미애, “초등학교의 열린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1.
- 박제삼,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급경영 개선방향 탐색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박종원, “열린교육에서 OPEN TIME 활용방법”, 서울열린교육연구회, 서울열린교육 자율연수 교재, 서울 : 열린교육연구회, 1996.
- 신극모, “열린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인식 및 개선방향 모색연구”, 한성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신옥순, 유혜령 역, 「유아를 위한 개방 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창지사, 1991.
- 심성보외, 「열린교육의 철학」, 서울 : 학지사, 1998.
- 오세분, “초등학교에서의 열린교육 운영에 대한 인식 및 실태·개선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2.
- 운현초등학교 편,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서울 : 운현초등학교, 1996.
- 은용기, 길형석, 「열린학교, 열린교육」, 서울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 이경희,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환경의 개방성에 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2.
- 이석주, 「열린학습의 준비와 실천」, 서울 : 열린수업연구소, 1997.
- 이영희, “열린교수-학습의 운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학위 청구논문, 1997.
- 이현남, “열린교육의 유래와 개념”,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4.
- 임형진, “열린교육의 이론적 고찰”,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4.
- 장원희,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5.
- 조연순, “열린교육의 교육과정”, 「열린교육의 이해」, 서울 : 양서원, 1996.
- 조주연, “사회적 기초”, 「열린교육의 이해」, 서울 : 양서원, 1996.
- 조효숙, “초등학교 열린교육 경험이 중학학업성적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천수성 역, 「학교를 연다」, 부산 : 도서출판 지평, 1993.
- 최재인, “영훈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열린교육의 이해」, 한국열린교육연구회, 한국초등교육학회, 서울 : 양서원, 1994.
- 한국교육개발원, 「열린교육 현장연구」, 1996.

2. 外國文獻

- Frazier, Alexander. “Open Schools for Children”, Washington D.C. :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72.
- Hertzberg, Alvin & Edward F. Ston. “Schools are for Children : An American Approach to the Open Classroom”, N.Y. : Schochen Books, 1974
- Inlow, G. M. “The Emergent in Curriculum”, New York : John

Wiley, 1986.

Morrison, G. S. "Early Childhood Education Today", Ohio :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1980.

Rothenberg, J. "The Open Classroom Reconsidered",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vol. 90, 1990.

Stephens, L.S.(1974), "The Teacher's Guide to Open Education", N.Y.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附錄>

「 열린교육운영에 대한 교사와 아동의 인지도 및
개선 방안연구」 의질문지

— 교 사 용 —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열린교육에 대해서 교사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열린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입니다.

이 자료는 본 연구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선
생님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8. 9.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학과 교육행정전공

류 근 해 올림

- | | | |
|---------------|--------------------|-------------------|
| 1. 성 별 : | (1) 남 () | (2) 여 () |
| 2. 연 령 : | (1) 20 ~ 29세 () | (2) 30 ~ 39세 () |
| | (3) 40 ~ 49세 () | (4) 50세 이상 () |
| 3. 교직경력: | (1) 1년미만 () | (2) 1~5년 미만 () |
| | (3) 6 ~ 10년미만 () | (4) 11~ 15년미만 () |
| | (5) 16 ~ 20년미만 () | (6) 20년이상 () |
| 4. 열린교육 : | (1) 1 ~ 2년 () | (2) 3 ~ 4년 () |
| 경험연수 | (3) 5년이상 () | |
| 5. 열린교육실시교과 : | (1) 전과목 () | (2) 일부과목 () |
| 6. 현근무지 : | (1) 서울 () | (2) 지방(경기도) () |

♣ 다음의 문제들을 읽으시고 선생님의 의견과 가장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만 골라 그 번호에 v 표해 주십시오

♣.열린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1.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는?

- ① 적극 찬성한다. ② 찬성하는 편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그저 그렇다. ⑤ 반대한다.

2. 열린교육에 대한 아동의 호응도는?

- ① 매우 높다. ② 높은편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낮은편이다. ⑤ 매우 낮다.

3. 선생님은 교육방법이 열린교육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4. 선생님의 열린교육 실시에 가장도움을 주는 것은?

- ① 열린교육 학회 참관 및 워크샵 ② 시범학교 시범수업참관
③ 열린교육 월간지 ④ 동료교사의 시범수업참관

5. 열린교육의 전망에 대해서는?

- ① 교수 - 학습개선에 기여한다. ② 현상대로 유지 될 것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일시적 유행

③ 기초학력저하 우려

④ 학습부진아 발생 우려

11. 선생님은 열린수업을 어느때 하십니까?

① 매일

② 매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③ 1주일에 하루

④ 지정된 특별한 날(연구수업)

12. 열린교육을 위한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시하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① 교사의 지식부족

② 수업준비를 위한 시간부족

③ 학습자료 준비의 어려움

④ 어린이들의 수업 적응 방법 부족

라. 열린 교수 - 학습을 위한 학습자료

13. 열린수업을 위한 학습자료의 투입시간은?

① 충분하다. ② 적당하다. ③ 부족하다. ④ 부족한 편이다.

14. 교수 - 학습자료를 제작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원인은?

① 공문서 처리관계로

② 수업시간의 과다로

③ 청소년 육성단체 참여관계로

④ 단순 사무적 업무로

15. 열린교수 - 학습자료 제작 경비는?

① 학교에서 전액지원

② 부족할 때가 있다.

③ 부족하여 개인이 충당한다.

④ 학교이외에서 도움을 받는다.

마. 열린교육에서의 학업성취도 평가

16. 열린교육후에 학습평가 방법은?

① 공식시험이 없고 수시로 진단평가, 형성평가를 한다.

② 개발제작된 평가지를 사용한다.

③ 위의 것을 병행한다.

④ 수업중 관찰, 발표 또는 학습 결과물로 평가한다.

17. 열린교육에서 평가를 할때 가장 큰 문제점은?

- ① 많은 수의 아동으로 개개인 평가가 어렵다.
- ② 아동 개개인의 도달목표 수준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 ③ 개개인의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을 평가할 수 없다.
- ④ 수행평가 계획대로 수업시간에 평가하기가 어렵다.

18.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점에 가장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급당 아동수를 줄여야 한다. ② 평가에 학습자 자신을 동참시킨다.
- ③ 수행평가 방식으로 항상평가해야 한다.
- ④ 수업중 평가는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특별활동 운영에 있어서

19. 특별활동 영역중 열린교육에 가장 적합한 영역은?

- ① 클럽활동 ② 학교활동 ③ 학급활동 ④ 조별활동

20. 열린 특별활동을 실시해서 향상되는 점이 있다면?

- ① 발표력이 향상된다. ② 인성이 아름다워진다.
- ③ 협동심이 생긴다. ④ 주의력이 산만해진다.

21. 열린교육이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은?

- ① 개성파악에 도움이 된다. ② 자율성, 적극성이 신장된다.
- ③ 더 무질서해 진다. ④ 잘 모르겠다.

22. 소집단 활동을 했을 때 좋은점은?

- ① 협동심이 키워진다. ② 자주성이 키워진다.
- ③ 용기가 생긴다. ④ 학습이 대체로 활발해 진다.

♣.열린교육의 실시로 부수적으로 향상되는점은?

23. 교육기자재 활용 빈도수는?

- ① 더 활발해 졌다. ②평상시와 별 차이가 없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활용 빈도수가 줄었다.

24. 교육기자재 활용 능숙도는?

- ① 많이 향상 되었다. ② 여러 기자재 활용방법을 알게 되었다.
③ 활용에 자신감이 생겼다. ④ 활용을 기피하게 되었다.

25. 열린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호응도는?

- ① 높은편이다. ② 별차이가 없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낮은 편이다.

△ 감사 합니다.

< 질 문 지 >

— 아 동 용 —

본 질문지는 초등학교의 열린교육에 대하여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보고서 작성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것들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공부를 가르치는데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 9. .

작 성 자 : 류 근 해

다음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십시오

1.성 별 : (1) 남 () (2) 여 ()

2.학 년 : (1) 3 학년 () (2) 4 학년 ()
(3) 5 학년 () (4) 6 학년 ()

3. 담임교사

(1) 남 자 () (2) 여 자 ()

< 질 문 20 문항 >

잘 읽어보고 자기 생각과 제일 가까운 것을 한 가지만 골라 보기처럼 번호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보기> 나는 어디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 평상시 해오던 수업 방법에 대하여.

1.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주로 어떻게 해결 합니까?
① 혼자서 스스로 한다. ② 부모님과 같이 해결한다.
③ 친구들과 함께한다. ④ 참고서를 보고 해결한다.
2.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의 분량은?
① 너무 많다. ② 적당하다. ③ 적은편이다. ④ 안내 주신다.
3. 조사나, 수집하는 숙제는 어떻게 해결 합니까?
① 직접현장에 가서 조사하거나 수집한다.
② 부모님과 함께가서 해결한다.
③ 친구들과 함께가서 해결한다. ④ 어러 이유로 못한다.
4. 학교에 가져 갈 준비물은 어떻게 준비 합니까?
① 미리미리 내가 준비한다. ② 부모님이 준비 해 주신다.
③ 등교 때 준비한다. ④ 친구들에게서 빌려 쓴다.
5. 일주일 동안 준비물은 몇번 정도 합니까?
① 매일 ② 5 ~ 6 번 ③ 3 ~ 4 번 ④ 1 ~ 2 번

6. 선생님과 어떻게 공부할 때 제일 재미있습니까?

- ① 설명만 듣고 공부할 때 ②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공부할 때
- ③ 자료를 사용해서 만져보고, 실험하며 공부할 때
- ④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공부할 때

♣. 열린교육의 수업방법에 대해서(열린수업)

7. 어느때 공부가 제일 재미있습니까? (조별은 4명 이상)

- ① 조별로 공부할 때 ② 조별로 장소를 옮기며 공부할 때
- ③ 짝과 둘이 공부할 때 ④ 혼자서 공부할 때

8. 조별로 공부할 때 어떤점이 좋았습니까?

- ① 친구가 발표할 때 배울수 있어서 ② 이해가 잘 되어서
- ③ 내가 발표하는 것을 친구들이 들어 주어서
- ④ 내가 모르는 것을 친구들이 알려 주어서

9. 조별로 공부할 때 어떤점이 싫습니까?

- ① 너무 시끄러워서 ② 몇명만 계속 발표를 하기 때문에
- ③ 친구들이 무시해서 ④ 내 생각을 발표할 기회가 없어서

10. 이동하면서 하는 공부는 어떻게 생각 합니까?

- ① 매 시간 하고 쉽다 ② 재미있는 편이다.
- ③ 가끔하고 쉽다 ④ 왔다 갔다해서 싫다

11. 조별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모르는 것을 친구들에게 묻고,나도 가르쳐 주고, 선생님과 함께 하는 공부는?

- ① 이해가 더 잘 된다. ② 평상시와 같다.

- ③ 잘 모르겠다 ④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12. 교실에 있는 학습코너는 여러분의 공부에 어떤 도움을 주니까?

- ① 많은 도움을 준다 ② 많은 도움은 주지 못한다
③ 잘 모르겠다.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열린교육에서 시험보는 방법에 대하여 (평가)

13. 새로운 단원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아는지 시험을 봅니까?

- ① 정식 시험지로 본다 ② 쪽지 시험지로 본다
③ 선생님이 질문해 보신다. ④ 그냥 배우기 시작한다

14. 매 시간이 끝날 때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쪽지 시험을 보신다. ② 몇가지를 꼭 물어 보신다
③ 가끔 물어 보신다 ④ 그냥 시간을 마친다

15. 한 단원을 다 배우고 나서 어떻게 정리 합니까?

- ① 정식 시험지로 본다 ② 쪽지 시험을 본다
③ 말로 물어 보신다 ④ 그냥 지나간다

♣ 열린교육에서 특별 활동에 대하여

16. 반장, 부반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 ① 누구든지 뽑힐 수 있다 ② 공부 잘 하는 아이만 뽑힌다
③ 힘센 아이가 주로 뽑힌다 ④ 착한 아이가 주로 뽑힌다

17. 클럽활동 부서는 어떻게 정합니까?

- ① 하고싶은 부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다

③ 선생님이 정해 주신다

④ 하고싶은 부서가 없어서 못할 때가 있다

18. 클럽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① 매우 흥미 있어서 좋다 ② 평범하게 생각한다

③ 별로 유익하지 않다 ④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19. 학급문고와 학교도서관을 어떻게 이용 합니까

① 자주 이용한다 ② 가끔 이용한다

③ 학급문고는 자주 이용하나 도서관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④ 두 군데 모두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20. 학교 교재원은 어떻게 이용 합니까?

① 호기심이 있어서 자주 간다 ② 필요할 때만 간다

③ 개방하지 않아 별로 이용 못한다 ④ 가 본적이 별로 없다

♡ 감사 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eachers' and Children's Cognition of Open Education Operation and Its Remedial Measures.

Ryu, Keun-hae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Dept.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an investigatory analysis of the reality of open education operation, inquire into the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on open education and grope its remedial measure by synthesizing the opinions of the teachers practicing open education and of the children engaging in open learning.

By doing so, this study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materials for a little more effective open educ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most of the teachers agreed on the operation of open

education but some of them were reluctant to accept it and thus had a negative view of it. Therefore, unfledged teachers need to have a fresh understanding of open education since experienced teachers have practiced and gradually revitalized it with interests in school.

Second, children had a high level of responsiveness to open education but a majority of teachers had concern about the fall of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Younger teachers thought negatively of the performance of open education and were earnestly operating it.

Third, most teachers are learning much from the inspection of classwork or the open instruction practiced by their fellow teachers. Administrators are providing support for open education with increasing interests in it and still feeling themselves to lack capacity.

Fourth, teachers pointed out that the factors impedimental to open education include the excessive number of children per class, the excessive number of school hours provided by teachers in charge of higher grades.

Fifth, departmental teachers or functional teachers are increasingly providing students with open education relating to performing arts and physical education in terms of percentage.

Administrators will have to strive to assign the higher proportion of departmental teachers to arts and physical education.

Taken together,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drawn :

First, now that 4 to 5 years have passed since open education was carried into practice, all teachers are conscious of the direction and nature of open education but not yet equipped with the firm belief in it and the ability to accomplish it.

Second, it is thought that educational administrators should listen more to teachers' educational demands and provide much support for them so that open education may take root in society. They need to take it into careful consideration in terms of preparation for teaching materials, provision of quality materials and material management.

Third, a diversity of open learning requires a variety of evaluative methods. The model for the evaluative method of the class made up of the great number of children is needed accordingly. Since diverse evaluative methods require cooperation from specialists or the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 it is necessary, among other things, to develop the timely items for evaluation and disseminate them in a timely manner.

Fourth,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 educational method and educational finance that are consistent with children's and

their parents' educational demands. It is thought that both the school and its teachers should make untiring efforts to enhance educational quality, whereas school children's parents need to provide voluntary service or indirect support for lessening teachers' heavy workload so that they may provide quality education for children.